SEP 2 3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 1 —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일간) No. 617 1981년9월12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September 12, 1981

—한인대학생합창단 첫공연—
청중가슴에 메아리한 젊은 지성의 선율

한인대학생합창단 첫음악공연 "낙엽의 소리(Notes of Autumn)"가 늦여름밤을 젊음과 정열로 수놓았다. 음악회가 열린 토론토대학 그레이트·홀을 절반 가량 메운 약 300명의 청중은 토마스·몰리 작곡 "Sing We and Chant it"의 힘찬 합창을 서두로 해서 마지막 모잘트의 "Missa Brevis, K259"가 끝날 때까지 2시간동안 아름다운 화음과 박력의 선율에 많은 갈채를 보냈다.

청중들은 또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듯한 그들의 용기,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김인안양(낸시·김, 토론토대학 공대 4년)이 지휘, 김현옥양(모린·김, 웨스턴음대 3년)이 반주를 맡은 합창중 바하의 "Jesu, Joy of Man's desiring"은 화음의 절묘함을 나타내는 압권이었다.

이번 공연의 특색은 합창, 독창, 피아노독주등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짰고, 합창곡 선정도 중세성가로부터 흑인영가, 한국가곡등을 폭넓게 선택, 청중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한 점이다. 공연의 금상첨화는 토론토음대 4년 메조소프라노 신성하양 이었다.

신양은 풍부한 성량과프로펫쇼날을 빰칠 익숙한 스테이지·매너로 청중을 압도했다. 모잘트, 바버의 노래들과 김동진 작곡의 "가고파"를 열창한 신양은 노래에 따른 표정변화등 곡의 내용을 청중에게 잘 전했다.

특히 "가고파"는 청중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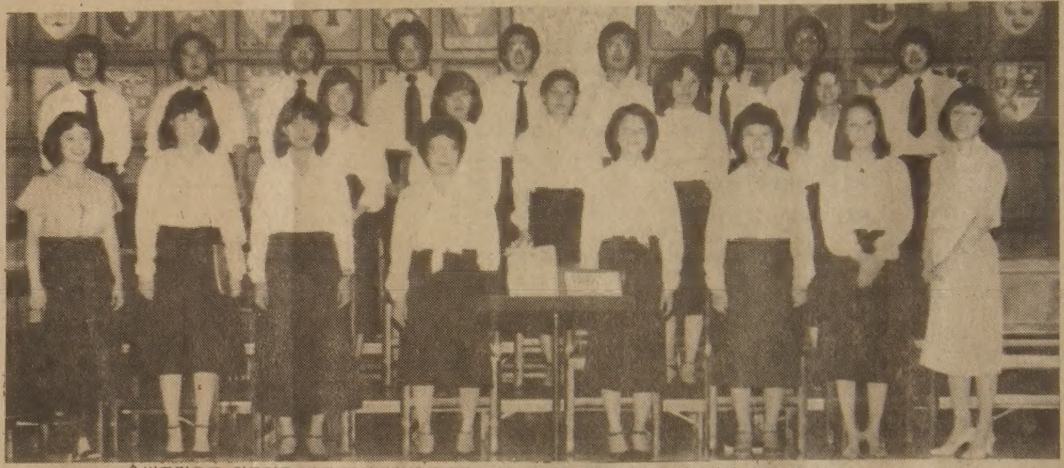
토론토, 웨스턴, 퀸즈대학등 온타리오주 대학의 한인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26명의 합창단은 3개월간 피나게 연습, 개선할 점이 많지만 그런대로 성공적 공연을 가진 것이다.

지휘자 김인안양은 사비를 들여가며 합창단을 조직한 1급 공로자이다.

김영준(예일대학2년) 만 공연을 위해 미국서 왔다.

합창단은 장소 사용료등으로 2천여달러를 썼으나 입장료, 찬조금등 수입은 4백달러에 불과, 차액은 단원들 주머니에서 메워야할 형편이다.

학생들은 어느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다.



◇빈주먹으로 첫공연을 가진 한인대학생합창단. 앞줄 오른쪽에는 지휘자 김인안양, 왼쪽 끝은 반주자 김현옥양

곤잘레스부인에 30일간 체류허가

신혼의 단꿈이 깨어진채 5분간의 불법체류자로 해밀톤수용소에 감금됐던 미국인 곤잘레스씨의 부인은 30일간의 이민성 특별허가(Ministerial Permit)로 캐나다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이민국 대변인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미국영사관에서 미국 입국비자를 받는 문제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 곤잘레스씨는 곧 토론토 미국영사관에 부인의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 5일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캐나다쪽 나이아가라 에서 신혼여행을 즐기러 캐나다에 건너왔다가 방을 못구해 다시 미국으로 가던 중 미국이민관에 의해 부인의 자격미비로 캐나다로 돌려졌다

곤잘레스 부인은 콜럼비아 출신으로 지난 6년간미국에서 불법체류해 왔다

토론토의 미국 영사관은 "곤잘레스 부인의 경우 이민청원이 신청되면 2주안 허가될 수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렸다

◇최고 대상을 받은 윤영섭씨의 「독수리와 통나무」

목각가 윤영섭 최고상
상금만 만여달러 받아

나이아가라에 거주하는 교포 목각가 윤영섭씨가 CNE목각품 전시회에서 10여개상을 휩쓸고 1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윤씨가 출품한 작품 6개중 5개가 각종상을 받았다. 최고대상(Best of Show)을 받은 「독수리와 통나무」 높이가 12피트에 달하는대작으로 나무통을 기어올라오는 사자새끼를 독수리들이 깃을세우고 반격하려는 모습을 새긴것이다.

온 전시장을 압도한 이 작품은 최고대상 외에 캐나다 목각 최고상, 온타리오 최고상과 상금 8천달러와 목각공구 한세트를 부상으로 받았다.

8월19일부터 7일까지 열린 이번쇼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약 천여개의 작품이 출품된 세계적 규모의 목각쇼이다.

윤씨는 76년에 목각가로 캐나다에 이민왔고 한국에서도 근 14년간 동양민속공예사 등에서 작품활동을 해 왔다.

◇윤영섭씨

「독수리와 통나무」는 윤씨가 나이아가라에 있는메이플립스·타워(레인보우다리앞)에서 90일간 관광객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리에 완성했다.

이 작품은 CNE에서 영구소유한다.

윤씨의 다른작품들은 메이플립스·타워 3층에 전시되고 있다.

현재 나이아가라 지역에서는 윤씨외에 김규태씨가 목각가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36년만의 극적상봉
일본어머니와 한국딸

(김해=연합)한 일본어머니와 한국딸의 눈물겨운 재상봉이 9일 36년만에 이루어졌다

이들 모녀가 헤어진 것은 45년8월15일 한국이 일본의 투치로부터 해방되면서 재한 일본인의 본국소개로 시작됐다

올해 73살인 스즈에·오하라는 한국인 남편과 살다가 해방되자 본국으로 돌아간 일본여성중 하나다

오하라 노피는 9일하오 김해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헤어지기 전 사용했던 일본이름을 부르며 딸 최무자(45) 여인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극적인 해후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아내들의 친목단체(부산소재)의 주선으로 실현되었다

이 단체의 리더 후사고·쿠니다는 해방전 오하라의 이웃에 사는등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韓國産자동차 美國市場에 곧 진출
LA타임스 보도 한국경제 다시 침체에서 벗어나기시작
中東에 80억弗건설계약, 86년에 5백억弗 수출 목표

LA타임스는 8일 한국은 고립의 시기에서 벗어나 자립, 이제 세계시장을 누비는 「세계의 상인」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동지1면에 소개된 「한국…세계속의 상인」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은 세계 곳곳에 상품을 수출하고 은행을 세우며 여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외국사업에 투자하는가 하면 대외원조까지 하고 있으며 이같은 눈부신 발전은 70년대 중반 싼노동력을 중동의 건설시장에 투입하면서 시작됐다.

지금까지 싼노동력으로 한국은 지난해 대중동건설계약고 80억달러를 기록했으나 노동임금이 점점 상승하면서 한국건설업체들은 보다 싼 외국노동력을 사들여 현재 이같은 노동력은 인도, 필리핀등을 포함 모두 1만4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 오는 86년까지 연간 수출액을 5백억달러까지 올리려 계획하고 있으며 아직도 초보적인 기술로 만든 상품이 수출의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일본은 벌써 직물, 전자, 조선및 강철업에 대한 한국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강철수출은 2억8천1백만달러를 기록했고 현대자동차는 포니승용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노려 현재 유럽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전세계에 20개의 은행지점을 갖고 있으며 아직도 막대한 차관을 들여오고 있으나 미국에 컬러TV 공장을, 수단에 타이어공장을 설치하는등 외국에 대한 투자를 늘여가고 있다.

한국의 대외원조계획은 아직 소폭적이나 재무부통계에 의하면 기술차관, 국제재정기구에의 기부등으로 지난해 모두 3억1천1백10만달러를원조했다. 이밖에도 한국은 외국인 기술자들을 훈련시키는가 하면 외교관계에도 공세를 펴 현재 1백16개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수」 IOC위원방한 올림픽 서울 개최건

(서울=연합)한국올림픽위원회(KOC) 조상호 회장은 9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일원인 자유중국의 「헨리·수」와 만난 자리에서 88년 하계올림픽의 서울개최건에 대해 상의했다

조회장은 한국의 88년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위원들의 협조를 얻는데 KOC가 많은 노력을 했음을 시사했다 「수」위원은 이 KOC의 희망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수」위원은 한국의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상황이 한국의 올림픽 개최에 지장을 주는 중요요소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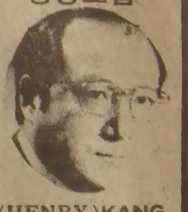
◇독창자 신성하양

토론토발행인: 김 명 규
편 집 인: 이 석 현
광 고 부 장: 송 광 호
식 자 부 장: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윤 방 현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 KANG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SunLife OF CANADA
취 급 보 험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김 신 명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B) 922-3111 R) 439-8885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1981년 LUXURY
CONVERSION VAN
TOWNE TRAVELLER
(FULLY LOADED)
SALE PRICE : $20,183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 M5S 1A5

M5S

아시아의 「프랑스」 노리는 일본

막강한 경제바탕으로 미국중심관계 탈피 노력

▲일본 군지도자들이 대 잠수함용 P-3C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처음 인양받고 축배를 들고 있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미국 중심외교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세계의 주요역할을 담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란 명예에만 만족하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산업국가에 도전함으로써 「아시아의 새 프랑스」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서기 2000년을 목표로 프랑스를 서부유럽의 리더로 만든 드골 대통령의 독립정책을 모델로 삼고있는데 새로운 일본이 출범케 되면 보다더 강력한 민족주의,자체방어능력등으로 아시아지역의 비 공산국가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야심에도 불구하고 경제,안보 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관계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던 목재, 밀,석탄등을 인도네사아,호주,중공으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한 것을 예로들면서 장래에는 미국과의 중요한 관계가 약화되고 말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 몇가지 증거로 잘 밝혀지고 있다.

◉국제적인 협상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라는 종전태도를 바꾸어 강경한 접근자세로 임하고 있다.

◉패전후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일본이 군국주의로 변하고 있는외에도 이 헌법이 외부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 지도자들은 역사적인 종교분쟁 '지역방문을 더 이상 꺼리지 않고있다.

◉일본은 군사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하고있다.

◉또한 미국서만 구입하던 군사장비를 다른 국가에서도 사들이고 있다.

어쨌든 1억2천여만명의 일본 국민들은 아시아와 제3세계 국가들도 미국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들어 스즈끼 일본수상은 취임직후인 80년 중반에 미국방문을 우선한다는 전통을 깨고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했으며 앞으로 한국에 대한 신용대부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크레딧 확장은 단순한 우방원조라는 개념을 벗어나 일본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업저버들은 일본이 침체에 빠진 디트로이트 자동차산업을 돕기 위해 대미 자동차수출을 억제할 것에 동의했으나 85년 미국이 요구할지도 모르는 반도체 재품 수출억제에는 동의하지 않을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군사전문가들은 일본 공군전투기들이 곧 태평양지역을 항해하는 소련 잠수함을 추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미국정부는 이것이 미국을 돕는일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고성능 전투기들을 미국이 원치 않는 국가에 판매할 경우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으로 보고있다.

일본정부는 8월중순 예외적인 방위백서를 발표하고 "자유와 평화를 방어하고 경제번영과 아름다운 국토를 침략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했으며 이는 점차적인 군사력확장을 암시한 것이다.

이 방위백서는 소련의 위협을 지적한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일본은 최근 실시한 군사훈련에서 처음으로 가상의 소련 탱크를 표적삼아 자동소총을 발사했다.

서기2천년목표…드골 독립정책 모델삼아 보다 강한 민족주의로 세계주요역할 노려

다. 일본이 군사력확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BADGE X」로 불리우는 대공방어 시스템.

일본이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이 대공방어 시스템은 총13억달러에 상당하는 군사장비지만 미국의 일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본 자체서 공급하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침체와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 일본이 새로운 세계의 주요역할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일본 조그만 국토위의 강력한 경제대국

◉경제—일본은 자유진영에서는 미국다음으로 큰 경제대국으로 80년도에 4.2%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산업—일본은 세계 제1의 조선업을 갖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작되는 새 선박의 40%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에서는 80년도에 미국 자동차 총생산량과 거의 같은 6백만대를 외국으로 수출했다.

◉인구—1억1천780만명으로 99%가 순수한 일본사람.

◉국토—미국 몬타나주 크기정도의 14만7천 평방마일.

◉군사력—미국 군인수의 1/8정도에 해당하는 24만1천명. 국민총생산고의 1% (정부예산의 5%)를 군비로 소비하고 있다.

한·일공동성명 위기 양국 관계악화 우려

(서울=연합)일본정부는 금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각료회담때 발표될 공동성명의 실현 희박성에대해 대처하고 있다고 8일일본 외무성의 한 관리가 말했다.

공동성명 실현 희박성의 주원인은 한국의 방어임무와 일본정부의 한국경제원조에 대한 양국간의 정치적 견해차이라고 관계소식통이 전했다.

만약 이번 한·일각료회담후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으면 1967년 한·일각료회담개시후 처음있는 일이며, 양국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캐나다7, 소련3

◇슈퍼스타 웨인·그레츠키가 특기대로 골·넷트 뒤로부터 퍽을 몰아 첫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이골은 경기시작 58초만에 이루어 졌다.

하키 예선

캐나다 1위, 소련 2위

3피리어드 5점 집중

캐나다는 제3피리어드에서 5점을 집중 소련을 7:3으로 누르고 「캐나다 컵」세계하키대회 예선 1위로 준결승에 진출 11일 4위 미국과 대전케 됐다.

9일밤 몬트리얼에서 속개된 예선 마지막경기에서 3승1무의 동률인 캐나다와 소련 마지막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질·페레의 부상으로 공격진용이 흔들린 캐나다는 페레 대신 L.A.킹의 마샬·디온을 기용 디온 그레츠키 라프레로 포드진을 구성했다

이 포드라인은 적중, 대활약했으나 2피리어드에 들어와서 소련의 과감한 공격으로 게임은 시소 2:2타이를 이루었다

그러나 3피리어드 4분8초에 캐나다는 미들톤의 슛으로 3:2 게임을 리드하기 시작하고 이후 4점을추가하여 7:3으로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캐나다는,4승1무 무패의 전적으로 약체 미국과 준결승에서 재대전케 됐다 예선전에서 캐나다는 8:3으로 미국을 물리쳤었다

소련은 이날 패배로 3위 체코와의 준결승은 11일 오타와에서 갖는다

한편 결선 마지막 한자리를 놓고 대결한 스웨덴과 체코와의 대전에서는 체코 7:1로 대승 3위로 준결승에 올랐다

미국은 4패의 핀랜드 대전에서 4:4로 비기는 바람에 4위로 1위 캐나다와 대전케 됐다

준결승과 결승 대진표는 다음과 같다

11일 준결승
캐나다:미국
(몬트리얼 8시)
체 고:소련
(오타와 5시)
13일 결승(몬트리얼 8시)
(위 3게임은 모두 CTV (CH 9)를 투해 중계된다)

외국 관광객 11% 증가

한국서의 소비액도 늘어

(서울=연합)9일 교통부집계에 의하면 8월말 현재 총 726,081명의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11.4% 가중가된 것으로 국적별로 보면 일본 328,164명(3.1%가 증가), 미국 85,599명(6.6%증가), 대만 95,723명(42.2%증가)순이다.

이들 관광객들은 채류기간동안 총 2억9천9백만 달러를 소비했으며, 이것은작년 같은기잔에 비해 37.4%의 증가율이다.

한국정부는 올해 118 만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목표이며 이 목표가 달성되면 4억2천만달러의 관광수익을 올리게 된다.

한인볼링 리그 내년 5월까지

한인 볼링협회(회장:정용피)가 주관하는 「한인볼링대회」가 9월13일부터「플레이 타임」(더프린×로렌스) 볼링장에서 내년·5월중순까지 계속 된다.

이대회는 리그전으로 매주 일요일 하오6시에 개최된다.

한인 볼링협회는 아메리칸 볼링협회(ABC)에 가입된 산하단체로서 회원은 누구나 공식 핸디캡을 인정받고 캐나다 전역에서 벌어지는 공식시합에 참가할수 있는 자격을 갖게된다.

회장은 볼링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 운동으로서 한인교포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특히 부부팀으로 출전하는 것도 대환영이라고 덧붙였다

볼링협회 회비는 1년에 30달러이다

한·일경제협력 촉구 미국방성차관보

(워싱턴=연합)리차드·아미태지 극동아시아 담당국방성 차관보는 8일"한반도의 안정은 일본안전에매우 중요하므로 일본은 한국정부와 긴밀한 경제협력을 가져야 한다고 미국정부 고위지도자들이 일본에게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하고있는 민정당 사무총장 권정달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아미태지는 한국이 GNP의 6%를 국방비로 지출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데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미태지는 권의원에게 카터행정부때는 오직 언론기관을 통해서만 한국안정문제를 다루었지만 리건행정부는 한반도정책에 더욱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있다고 말했다.

아미태지와 권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국정찰기 SR-71미사일 공격과 한국국방 산업에 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환진 1차방어전

한국선수 김용현이 도전

(서울=연합)세계권투협회(WBA)쥬니어 플라이급 챔피온 김환진은 10월4일 같은한국선수 김용현과 1차 타이틀 방어전을 갖는다고 김환진의 매니저 전호연씨가 9일 발표했다.

도전자 김용현 선수는현재 세계랭킹 8위와 같은협회의 동양챔피온으로 올라있다.

전 챔피온 페드로·플로레스(멕시코)를 물리쳐지난 7월 타이틀을 딴 김환진의 방어전은 두 선수가 모두 전호연씨가 관장하는 극동프로모션에 속했다는 이유로 많은 잡음을 일으킬것 같다.

전씨는 당초 김환진에게 도전하기로 예정된 일본의 마샤루·이나미 선수가 지난8월 WBA 세계랭킹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김용현이 도전자로 결정됐다고밝혔다.

"와일드캐츠"우승 교포소년하키팀

10~14살의 교포어린이들로 구성된 토론토의 소년 하키팀 「와일드캐츠」(Wild Cats)는 28일(금) 하오8시 웨스트우드·링크(Hwy27 & Finch)에서 열린 상위피위(Peewee)그룹 결승전에서 「다크뷰부」팀을 11:0으로 가볍게 누르고 우승트로피를 차지했다.

5월15일부터 시작된 리그전에서 「와일드·캐츠」는 17전10승6패1무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416)533·2361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NOT ON YOUR LIFE!

'Superman' 이라는 영화를 보면 새까맣게 높은 skyscraper (고층건물)꼭대기에 Superman의 girlfriend (애인)가 추락된 helicopter(헬리콥터)를 탄채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장면이 나온다。이때, Superman 이 날아가서 애인을 구해내고 마침내 땅으로 떨어지는 헬기까지 무사히 구출해내는데,이것을 본 경관이 나중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동료경관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주자 Not on your life!라고 대꾸하는 부분이 나온다。

Not on your life. 란 직역하여「목숨을 걸고도 아니다」, 다시 말해 어떤것을 몹시 강조하여 부정할때 쓰이는 말로서 absolutely not(절대로 아니다)와 같은 의미다。그 사실을 목격하지 않은 경관이 한말은 결국 「절대로 그럴리가 없다」라고 강력히 부정하는 말이다。

You want me to fight with Mohammed Ali? Not on your life! (날더러 모하메드 알리와 싸워보라구요?죽어도 못합니다。)

You want me to pay you $500 for that pile of junk? Not on your life! (저 고물차를 날더러 500불씩이나 내라구요? 어림없는 소립니다!), 이상과 같이 사용한다。

또한, girlfriend나 boyfriend는 보통의 친구사이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date하는 사이, 즉애인 (lover) 의관계를말하며 애인이 아닌 그냥 여자친구를제삼자에게 소개할때는 She's my friend. 라고 하면된다。

A : You had your car fixed last week, didn't you?
B : Yes, but I'm still having trouble starting it.
A : Why don't you buy my car? I'm buying a new one and I have to get rid of it.
B : How much are you asking?
A : $500.00.
B : You want me to pay you $500.00 for that pile of junk? Not on your life!
A : 지난주일에 차를 고치지않았던가요?
B : 고쳤지만 시동이 아직도 잘 안걸리는군요。
A : 내차를 사지 그러세요。새차를 구입하게되어 지금 가지고있는 차를 처분해야 된답니다。
B : 얼마를 원하세요。
A : 500불만 내십시요。
B : 저 고물차를 500불이나 내란말인가요?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superman: 수퍼맨 (슈퍼맨이라고 발음하지 말 것)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사람。wouldn't start: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조동사 would를 사용하여 표현한다。get rid of: 처분하다。pile of junk:고물이 쌓여있는 상태, 고물단지

본 칼람 담당자의「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수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본캐너더·뉴스, 미국전역의 한국일보, 한국의 일간스포츠에 연재되고 한국의 MBC 문화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책의 내용을 전부 녹음한 카세트에는 「특수발음교정법」이 한국말및 영어로 수록되어있음. 또한 한국및 미주사상최초로 제작된 「영어회화 비디오」는 미국현지 생활 현장을 촬영하였으며 생활영어와 발음교정에 중점을 두어 편집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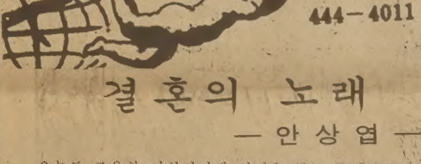
구입처:
B.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화:(312) 966-4050
책: 제1권(12불)제2권(12불)제3권(12불)
카세트: 1권용(33불)2권용(38불)3권용(38불)
비디오: BETA(6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민병철생활영어
책、카세트、비디오

정정

◆2일자 1면에 게재된 런던의 도시별 한인축구대회 기사중「청솔회」를 전「정우회」라 한것은 잘못 이기에 바로잡음.

청솔회 멤버중에는 정우회멤버였던 박원모씨 1명이 끼어있을 뿐 두 팀은별개의 팀입니다.



결혼의 노래

— 안상엽 —

오늘도 조용한 아침시간에 성경을 읽는 중 「시편」45편에 닿했다. "결혼의 노래"인 것을 알고 있기에 좀더 깊이 이해하려고 귀절귀절의 뜻과 배경을 더듬었다.

수시로 거행되는 많은 결혼예식을 생각하며 거기 노래와 음악이 있는데, 이 「시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대조해 본다.

올갠이나 피아노 연주를 따라 입장과 퇴장이 있고, 예식중에 교인 전체가 부르는 찬송, 그리고 때로는 친구나 친척의 축가를 듣게 된다.

예식이 끝난 후 축하연에 참여하면 마치 어느 음악콩쿨에나 간 듯 다양한 노래를 듣게 된다.

한참동안 어수선한 공기 속에서 부스러진 노래소리를 몇곡 듣다가 보면 청중은 "먹었으니 가야지" 하는 옛말을 틀림없이 실천으로 옮겨 술술바람같이 빠지고, 연회장에는 외로운 신랑과 신부 그리고 입속이 말라가는 사회자와 몇사람만이 멋없이 앉아 쑥스럽게 서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생각닌다. 축가가 듣기 싫어서인지 모르나 우리네의 축하연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붉고 흥겨워지는 다른 사람네들의 축하연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역시 먹는 문제가 큰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는 듯하다.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멀어졌기에 다시 휘잡아 앞에서 읽은 「시편」으로 돌아간다. "결혼의 노래"는 모든 사람이 신랑과 신부에게 보내는 축하와 축복의 기도다.

"왕의 귀비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비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 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 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 "결혼의 노래"는 이방여인을 취한 영화로운 솔로몬왕에게도 해당되려니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왕의 결혼식에도 해당되었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왕은 당시의 부강한 나라 베니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들과 결혼하게 하고, 이를 기회로 외교를 맺고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꿈꾼 것이다. 베니게는 옛 가나안과 같이 농사의 신 "바알"(Baal)을 믿었고, 풍작과 흉작은 바알신의 힘으로 좌우되므로 그들은 신전에 많은 매음녀를 두어 제사장과 교음함으로 신을 즐겁게 하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으려고 했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바알"신을 섬기는 여제사장과의결혼식에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이같은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베니게와 바알신을 이제는 떠나 남편 아합왕의 부인이 되고, 이스라엘의 딸이 되어 그의 아름다움을 통해 사랑을 받고 축복을 누리라는 축가였다.

그것나 이세벨은 베니게와 바알신을 버리지 않고 주인의 격이 되어 왕과 왕실과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끌고간 것이다.

비록 모압땅의 이방여인이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로 가면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루1:6)라고 했다. 다른 하나의"결혼의 노래"다

재산의 동등권이나 남녀동등권이 부부의 조건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 한배에 한 선장이 있듯이 한 가정에 한 주인만 있을 때 "결혼의 노래"는 행복의 약속이 될 것이다

(토론토한인 선교교회 담임)

토론토한인골프협회
1981년도 ANNUAL 골프시합

장 소: CASTLEMORE COUNTRY CLUB
시 일: 1981년9월19일(토요일) 오전10시부터
참가비: $30.00
참가자격: 카나다거주한인(선착순60명)

접수연락: 정 정 홍(678-2444)
원 장 호(889-3544)
김 만 구(486-0397)

시 상: ◆남자부
GROSS 1등— 협회 애뉴얼·컵
MOLSON 애뉴얼·컵
GROSS 2등 〃
GROSS 3등 〃
NET A 1등— 협회 애뉴얼·컵
2등 〃
3등 〃
NET B 1등— MOLSON 애뉴얼·컵
2등 〃
3등 〃
롱게스트·드라이브·콘테스트
니어리스트·홀
스트레이트·볼
모스트·온네스트·골퍼

◆여자부
GROSS 1등— 협회 애뉴얼·컵
2등 〃
3등 〃
NET 1등 〃
2등 〃
3등 〃
MOST HONEST 골퍼
외 많은 상품이 있음

주최: 토론토한인골프협회 후원: MOLSON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 752—7771
회 장 : 이 형 인
부 회 장 : 임 철 원
〃 : 김 명 정
이 사 장 : 김 태 진
부이사장 : 전 윤 식

육류 (Fresh Meat) 취급 허가세 일부 반환된다

그동안 협회의 관심을집중시켜온 육류취급 허가세에 대하여 메트로 라이센싱 커미션이 그 법적용범위 시정에 대하여 알려온 것으로 일단락되게 되었으며, 납부한 세금액은 반환받게 되었다. 즉 80년도에는 허가세가 $7이었는데, 81년도에는 $5로 되어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많은 회원들의 의견이 협회에 쇄도하여 그 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라고 했다.

그래서 관계임원들이 백방으로 노력해 오던 일이었으며, 심지어 시의원 잉호프씨에게 관계법의 개정노력방법까지 문의하여 그 해답을 기다려오던 중이었다.

커미션의 윌리암· 바커 매니저의 이름으로 각해당 스토어에 편지를 직접 보내온바 있는데, 회원들은 그러한 편지를 입수하는대로 수속절차를 밟아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의 명단에 의하면 당신은 1981년도 육류매매 허가세를 납부 했읍니다 우리는 근래 이 육류취급 매매허가세의 적용범위가 팩케이지 육류제품인 샌드위치 고기, 위너, 베이콘 같은 제품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합법적인 의견을 받아들였읍니다.

만일 당신의 사업이 신선한 육류(생고기류)들인 스틱, 로오스트, 혹은 다른 종류들로 차를 이용하여 사들여서 부처(고기 다루는 사람)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편지의 아랫부분에 있는 공란을 명확히 기록하여 81년도 허가(License)서를 동봉해 주시면 즉시 해당액을 반환할 것입니다."

81년도 육류취급 매매허가세중 팩케이지 육류제품에 적용되는 허가세는 $10이라고 하며, 상기 편지를 받는 대상은 $45로 허가세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총지배인 윌리암. A. 바커

NAME(이름)
ADDRESS(주소)

SIGNATURE(싸인)

N.B. 반드시 81년도 허가세를 납부해야 반환이 가능함.
보낼곳 : Metropolitan Licensing Commission
20 Holly St. Tor. Ont. M4S 2E6
Tel. 488—2221

중벌로 다스리는 부정담배 거래

근래 두 사람의 온타리오 시민이 부정담배 거래의 탈세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185만달라 상당의 부정담배에 대한 세금포탈 혐의라고 담당수사관은 밝히고 있다.

수사관에 의하면 온타리오 주의 담배세율이 타주의 세율보다 높은 것을 이용하는 부정수법이며, 이런 류의 부정담배탈세거래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5월 주정부 예산에서 담배 한카톤당 $2.92씩 부과시키고 있는데 알버타주의 경우에는 64¢씩 하고있기 때문이다.

기소된 두 사람은 윌로데일의 존·반스와 토론토의 웨인·바알이란 사람인데, 50카톤이 들어있는 박스 4000개를 운반해 오다가 체포되었다고 하며, 이들의 탈세액은 거의 50만달러 가량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1979년12 월부터 부정담배를 팔아왔는데, 주로 버라이어티 · 스토어나 작은 코너스토어였다고 한다.

이들의 기소내용은 온타리오주내에서 무허가로 담배판매행위를 32회나 했다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벌금으로 $3,200과 추가된 다른 범법내용들이었다.

운좋게 이 두사람은 1980년6월에 개정된 온타리오주 세금법의 탈세범 중벌조항을 적용하기 이전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벌금과 처형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만일 개정된 법에 해당된다면 이들은 $477,480의 벌금과 시민벌과금(A. Civil Penalty) $60만달러. 또는 2년간의 감옥생활을 언도받았을 것이다.

또한 씨릴 · 오하라씨가 대장으로 있는 온타리오주정부 세무성 특별수사대에 의해 기소되었을 것이다 그 개정된 새로운 중벌 조항에서는 벌금이 취급한 담배세금과 같은 액수이며, 정부의 수사관들은 현재 운행중인 차량을 정지시키고 적재된 화물을 수사힐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주정부 당국자에 의하면 부정담배 탈세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8개월 전부터인데 그것은 온타리오주가 다른 주들보다 담배세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같은 류의 부정담배 탈세자들로부터 징수하는 포탈세액은 다른종류의 포탈액보다 가장 높은 것이라 한다

그밖에 다른 부정담배탈세수법으로는 인디안 격리지역에 공급되는 담배의 유출에서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리서베이숀 지역에 공급되는 담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8개의 탈세범의 경우는 대개가 이러한 인디안 담배와 연관된 케이스이다 이들은 이미 재판에 회부되었거나 송치될 예정이라 한다

1980년6월 현재 인디안 격리지역에는 매일 961상자가 공급되어 오고 있다고 주정부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차츰 이러한 형태의 부정담배 탈세행위는 감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거운 벌금과 중벌로 취급하는 법 때문에 그렇다 한다 캐나다국내의 모든 담배판매점들은 알려진 도매상에서 공급받은 담배만을 취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충고하는 바이다

"Canada Distributor and Retailer 1981 7. 8월호 P. 9에서"

인터씨티·랙수당 4기분지급

인터씨티잡지회사의 캐쉬레지스터 앞의 디스플레이랙수당금이 다시 입수되어 즉시 회원들에게 배부되게 될 것이다 즉 80년도 마지막 분기분(10. 11. 12월분)이 지난 8월말 협회구좌로 입금되어 수표발행이 완료되는대로 배분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지난번에는 협회 사무장이 직접 수표를 전한바 있으나 이번에는 우송될 것이라 하며 가능하면 지난번에 누락된 회원들에게는 직접 전달해서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81년도 제1기분(1. 2. 3월분)도 신청이 완료되어 곧 수당이 올 것이라 하며 사무착오는 누락된 회원들을 위해 계속 노력중임을 알려드린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㊹

팔리·모왓 원작, 천 재 홍 옮김

세째, 캠프의 선택에서가장 복잡한 요소인데 죽은 사람들의 무덤과 좀 떨어져 있어야할 조건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무덤이 산재해 있는 곳에 캠프나 텐트를 치는것은 현명한일이 못되기 때문이다.

이 조건의 여러가지 상태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음장에 좀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리틀힐스 밑에있는 호숫가를 선택한것은 오래전의 일이었다. 왜냐하면 사슴의 가장 큰 떼가 이 호수변으로 먼 옛날부터 지나가곤 했었다. 여기서 사람들은 언제나 틀림없이 많은 사슴 을 잡을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땔나무는 주위에 버드나무숲이있고, 빨리 자라서 이호숫가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땔감을 얻었다. 때로는 충분한 땔감을찾아 캠프에서 15~20마일까지 나가기는 했지만 한때 크게 번창했던 이할미우트 캠프만은 무서운 전염병으로 죽은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땅의 다른지역에있는 캠프들이 당했던 전염병의위협에 비하면 리틀힐스에모여사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의한 희생자는 비교적 가벼웠던 것이다. 호수연변에는 죽은사람을 묻을자리가 많았고, 아직도 텐트를 치고 살수있는 지역이 얼마든지 있었다. 이할미우트의 집터에 대하여 연구하고 싶어서 집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매우 현명한데가 있었다.

이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그들의 지능과 재능에 다만 놀랄 따름이었다. 그러나 그런 존경심이 일어난것은 그들이 지어놓은가난하고 초라한 살림을 접해보고난 한참후의 일이었다. 다른 에스키모 들처럼 이할미우트의 겨울집은 우리가 부르는 이글루라는눈으로 만든 집이다. (에스키모의 말로 이글루는 집이라는 뜻이고, 눈뿐만 아니라 나무나 돌로도 짓는다.)이할미우트는 다른 이누이트와는 달리 눈집을담담하고 형편없이 짓는다. 내 생각으로는 이사람들이, 해안선에 살고있는 에스키모들한테 배워서 이글루를 짓는법을 알게 된 것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주 최근의 일인것 같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글루를 좋아하지 않고 아직도 텐트에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이 땔나무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게되었던것 같다.

북극의 겨울철은 어느집이나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도 꼭 땔감이 필요하다. 해안선에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잡은 짐승들한테 충분한 기름을 얻어 기름등잔을 사용하고, 이글루 안에서 음식을 해먹고 또 방도 덥힐수가 있다. 그러나 이할미우트는귀중한 사슴기름을 함부로쓸수있는 처지가 못되어 겨우 방을 밝히는 등잔용 밖에는 여유가 없다.

땔것이라고는 버드나무뿐이며 텐트안에서 불을피울때는 연기가 쉽게 빠져버리지만 눈속의 이글루안에서는 연기가 빠지질 못해서 사람이 견딜수가 없게된다. 그래서 텐트는 겨울이 깊어져 영하60~70도까지 내려가서 도저히 견딜수가 없을때에만 눈으로 집을 짓는다. 그제서야 마지못해 텐트를 버리고 이글루로 이사를 간다.

그때서부터 봄철까지 그안에서 전혀 불을피우지않는다. 그리고 음식은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세찬 바람을 맞아가며 밖에서 한다.

텐트를 이글루보다 더좋아하는 이유를 나는 아직 이해할수가 없다. 내가이미 기술했던것 처럼 나무로뼈대를 해놓고 사슴가죽으로 이어놓은 자리가 크게 벌어져 있다. 그것은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나무가지가 얽히어있는 것보다 조금낫다고 할수있다.

편편한 평원에서 불어오는 센 겨울바람은 가죽으로 막아놓은 벽이있으나마나 한 집을향해 눈을 몰아부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것도 집이라고 하지만 악마와같은 바람이 그땅위에있는 모든 생명을얼려 죽이려는 강추위에 몇날몇밤을 지샌다. 이 텐트안에서 불을피운다고 해야 고작 눈속에서 힘들게파낸 한줌의 축축한 나무에서며 나는불을 생각해보면 가히 짐작할만 할것이다. 여기서 나오는열은 바로 불옆에만 따뜻할뿐이고 물한주전자를 데우고나면 한두시간내에 곧 시들어버리고만다. 그칠사이없이 불어대는 바람은 텐트안으로 사정없이 들어와서 음식을하고 남은열을 순식간에 식혀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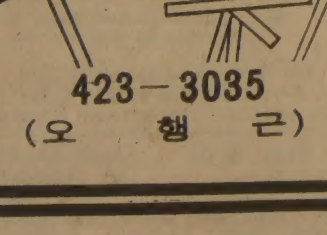
(계속)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주간女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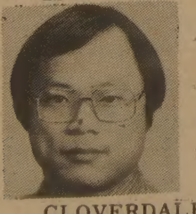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월~토 9 : 30AM~6 : 00PM
영업시간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월~토 11AM-7PM

운 전 교 습



423—3035
(오 행 근)

조규혁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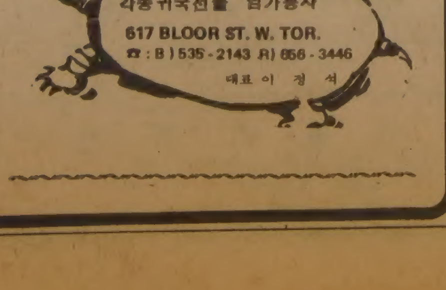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생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CHINA HOUSE / Bathurst / Bloor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 다운타운 밀크스토어
워싱톤과 새인크레어
☎ 656-3020, 960-0761

주중이나 주말에 스토아에서 파타임으로 일할 헬퍼구함(여학생). 주말에는 풀타임 가능함
☎ : 463-6334 QUEEN E. 지역

베이비 시터 구함 :
입주자 우대함
☎763-7450 미세스, 김

주말스토아 헬퍼구함
ALBION RD.
☎ : 745-6330

주방헬퍼2명, 웨이터1명 웨이트레스 1명 구함
☎ : 536-0290
한 국 관

가게 헬퍼구함 : 풀타임(유경험자)및 주말에 일할분
돈밀 로드와 쉐퍼드지역(오후6시 이전 연락바람)
☎ : 491-9701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 298-3383 마이크

치과에서 일할 RECEPTIONIST구함
영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함.
☎ 535-2798 233-9454
781-9591 (저녁)

도나스가게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헬퍼하실분
주중 : 오후3시~9시, 주말 : 오전8시~오후6시
영 스트릿과 칼리지 사이
598-1140

"급 구"
① 윤전기및 인쇄용카메라 기술자
② 윤전기및 인쇄카메라 기술 배우실분
③ 경리사원
(영어・타자 가능자)
☎ : 533-2361, MRS. LEE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 368-2819 미스타 웡

40대 전후한 여자분으로써 가게에서 뒷일 보아주실분 구함(힘든일 없음), 지하철 근처
☎ : 489-1650 3시~10시

애기와 살림해주실분 구함
☎ : 244-7303
663-1053

도나스샾에서 일할 여자분
풀타임 : 월~금(3~11PM), 파타임 : 토요일(3~11PM)
☎ : 482-4088

캐 비 넷 MAKER
FINE CUSTOM WOOD WORK.
GOOD PAY, BENEFIT
☎ : 742-7725

매매및 양도

건물및 비즈네스 매매,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6500달러 이상
☎ : 535-7200 미스타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500달러
고등학교앞에 있음.
☎ : 533-0334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5200+ 로타리오 수입으로 렌트 충당함 호조건으로 양도코자 함
주소 : 3240 EGLINTON, E.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중)
☎ : 781-7305

DOWNTOWN MALL안에 있는 성업중인 FAST FOOD STORE임
주6일 영업, 주매상 $2000 아스킹 $33000
☎ : 536-0463

①버라이어티・스토아(주매상 $5.500)
②버라이어티・스토아(주매상 $3.500)
③버라이어티・스토아(주매상 $4.000)
황 순 일 ☎ : 481-3443, 745-5485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위치좋은 코너 그로서리 가게 매매
주매상 : $3000~$3500(특히 야채 적합함)
3888 BLOOR RT. W.

급 매
타사업 관계로 급히 매도코자 함. 관심있는 분의 직접 내방바람.
357 COXWELL AVE. TOR. ONT.

COUNTRY STYLE 도나스샾 매매
이주관계로 급매코자함. A급 프라자내
주매상 5천5백~6천,
꼭 사실분만 내방바람(오전7시~정오)
8141 Yonge St. THORNHILL

벡커스토아 매매
오후 6시30분이후, 아침10~12시 연락바람
☎ : 439-3044

스토아 매매 :
건물달린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 1-387-3983 해밀톤 미스타 김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 : 252-7982

스토아 급매 : 2층집 달린 가게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 : 766-9491

①관광지역에 위치하고 주유소를 겸용한 버라이어티 & 그로서리 & TAKE-OUT 스토아 매매
2 베드룸 포함, 1.5에이커 크기 ASKING $89.000
②바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매매, 그로스 $440.000이상, 콘크리트 불럭으로 된 3베드룸, 아파트+2 베드룸 아파트렌트 월 $215 우편취급에 대한 매상 년 $11.000 ASKING $219.000
③관광지역, 타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스토아 매매 3 베드룸 포함, 그로스 $300.000, 좋은 장비완비 되었음. ASKING $129.500
CALL : SALES REP. IRVEN(RED) DeGraw
☎ : (705) 325-6069
WALTER DEAN REAL ESTATE LTD.
107 MISSISSAGA ST. E. ORILLA
☎ : (705) 325-6193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DALMER'S시설판매수리
에어콘・전기・개스・워킹쿨러, 후리저
☎ : (B) 746-3840, (R) 493-9945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녀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쉐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 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완, 전병호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자동차 수리 일체 :
☎ : 651-9324(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식 품 점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 1 시에서 8 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743-8270

꽃 집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날파・김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리 운 수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 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식 당

CHINA HOUSE
CANTONESS & MANDARIN CUISINE
781-9122 825 Eglinton W.

KOREA HOUSE
*즉석불고기 전문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TEL. 536-8666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8-0656(B), 493-7185(R)
정 해 문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일
669-5784 MR. 심

상하수도 수리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 (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헌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집・방세・하숙

방세놓습니다 : 독신환영
HARBORD & CRAWFORD지역
☎ : 534-5327

2층집 독채 : 3 베드룸, 2 목욕실, 차고.
10월1일 입주가능 월650달러
☎ : 465-6067 제인과 써인 크레어

여권 분실

분실공고 : 여권을 분실하였기 공고함
1619 ANWORLD COURT. MISSI. ONT.
☎ : 531-3491 이 홍 범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民正、「돗자리問責」黨職改編

政策議長등 5명辭表수리

"道義的책임물어 일단매듭"

국회일부文公委員과 民正 간부들에 대한 大韓敎聯의 돗자리선물사건은 8일 民正黨이 전격적으로 관련의원과 간부들의 黨職개편과 국회직의 개편교체를 단행하고 국회도 9일상오 자체처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수습단계에 접어들었다。 民正黨은 8일하오 돗자리사건에 대해 전격적인 강경조치를 斷行、이사건에 관련된 李珍雨정책위 의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未定) 李興洙 국회 文公委員長후임에 韓炳宋부총무를 內定하는등 일부고위黨職과 국회要職을 개편했다。

새文公委長 韓柄宋·간사 沈相宇의원
政策室長 朴鉉兌·副總務 朴在鴻의원

民正黨은 대한敎聯이준돗자리가 賂物의 성격은 아니지만 새시대정치인으로서 가져야할 品位를 손상시켰기때문에 윤리적 도덕적責任을물어 관련黨職者와 국회要職간부들의 사표를 수리했다고밝혔다。

民正黨은 이날黨職개편에서 裵成東정책조정실장후임에 朴鉉兌선전국장을 임명하는 한편 全煥字정책조정부실장겸 전문위원실장후임에 韓容鎬씨 (국세청關稅局長)를、金裕祥정책국장 후임에 許相壽총무국장을 轉補했다。

民正黨은 또 국회文公委의 간사를 沈相宇의원 (建設委) 으로 교체하고 원내부총무에 朴在鴻의원을 임명하는 한편 선전국장에 韓南熙청년국장、총무국장에 金裕祥정책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돗자리사건관련자들에게는 李載潔대표위원명의로 경고문을 발송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대한敎聯은 모두 19장의돗자리를 국회文公委와 각정당간부에게 돌린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관련자는 국회文公委의 9명의 의원 이외에 民正黨간부 5명 (院外2명포함) 과 民韓·국민당에도 院外인사를 포함 2~3명씩이 포함된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관련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않고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관련자는 다음과같다。

▲文公委=李興洙(위원장) 康吉正 具龍鉉 朴源卓 李大淳 (이상 民正) 金秉烈 李義永 康源采 (이상 民韓) 朴在旭 (국민) ▲民正黨=李珍雨 裵成東 全炳宇의원、金裕祥 金偉泳 (院外)

民正黨은 이날 黨職및국회직개편·교체에즈음하여 성명서를 내고『우리黨소속 국회의원과 黨職者일부가 大韓敎聯이 국회문공분과위원에게 선물했다는 세칭 돗자리사건에 관련돼 물의를일으키게된데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밝혔다。

이성명서는 또『이번사건에대해 우리黨은 깨끗한정치와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새시대의 개혁의지를 재확인하는뜻에서 관련자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묻고 이번사건을 매듭짓기로 했다』고 밝히고『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우리黨은 앞으로도 꾸준한自家革新을통해 새로운 정치인像을 정립함으로써 밝고 깨끗하고 명랑한 정치풍토를조성해나갈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런데 政策委의장 후임에는 陳懿鍾·羅碩昊의원이 유력한 물망에 오르고있다。

「돗자리」擴大안해
民韓 高총무에 一任

民韓黨은 8일 黨務會議를 열고 일부의원들의 돗자리사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이문제를 지나치게 확대시키지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高在淸총무에게 일임키로 결정했다。

金珍培대변인은『의원들이 敎聯으로부터 돗자리를 受收한 시기가 法案심의가 끝난뒤이기 때문에 문제의 돗자리는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문제를 지나치게 확대시키지 않기로 당무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李　의원

◇朴鉉兌의원

◇朴在弘의원

◇沈相宇의원

모두 19명이 받아

오늘斷案
國會、관련議員 警告

丁來赫국회의장은 8일하오『최근물의를빚고있는돗자리사건에관련된국회의원들에대한국회의처리방침을9일상오에밝히겠다』고말했으며高在淸民韓黨총무는 8일하오『李鍾賛民正黨 총무로부터 관련의원에 대한 民正黨측조치사항을 통보 받았다』며『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가 9일상오10시 丁의장을 만나 국회로서의 돗자리사건에대한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의원들의 국회職교체문제는 民正黨측 결정사항과 다를바없으나 관련의원개개인에게 丁의장이 경고문을 발송하게될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高총무는『이날중으로 柳致松총재와 만나 民韓黨소속 의원들중 관련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겠으나 民正黨측조치와 상응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해 金秉烈文公委간사를 교체할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高총무는『관련의원 19명중 14명의 명단밖에 모르며 民韓黨 黨職者가 이사건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지 못했다』고밝혔다。

"3億이하 被害市郡 왜 支援않나"

국회3개常委 颱風피해따져
恒久的 종합대책 곧마련
死亡실종 百49명·財産피해 8百16億

국회는 8일하오 徐廷和내무、高建농수산、金周南건설부장관을 출석시킨가운데 內務、農水産、建設委등 3개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水害상황및 복구대책을보고받은후질의를벌였다。

이날회의에서 중앙災害대책본부장인 金周南건설장관은 보고를통해『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집중豪雨및태풍으로인한 人命피해는 사망 1백8명、失踪41명에 1만5천2백28명의 罹災民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총8백16억8천7백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그동안 공무원 군인 민방위대원 예비군 주민 학생등 2백8만5천1백79명을동원、응급복구에 나서는 한편 수해지역에대한防疫활동을 전개했으며 6일부터 13일까지 6개중앙합동조사반을 파견、이를 토대로 항구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구대책으로 ▲주택복구는 11월말까지완료、入住토록하고 ▲공공시설은 우선응급복구를 실시한뒤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실시하되 소규모공사는 금년말까지、대규모공사는 82년 雨期前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生計가곤란한 이재민을위해 특별就勞사업을 전개하기로했다고 밝혔다。

특히 金融및 稅制지원을 강화、①피해業體에 시설및 運轉자금우선지원②旣存貸出金에 대한 償還기간연기③영세商工人에대한자금지원④農漁民에대한 營農·營漁자금지원⑤세금의納期연장·징수유예·법인세의 일정액 稅額공제계획등을세우고있다고말했다。

또한高建농수산장관은『벼浸水지역은 모두 10만4백11㏊로 1천7백58개의貯水池·小溜池·洑·用水路등이파손되고어선2백99척이全破、1백29척이반파됐다』고보고했다。

高장관은 또 漁船의 경우 2백99척이 全破、1백29척이 半破돼 모두 4백28척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사전에 주요港·浦口에 독려관을 파견、조업중인 배를 안전대피시키거나 陸上引揚을 시켰고 廢타이어등의부착으로 港內대피선의 충돌파손을 방지해 피해를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농수산부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港內繫船시설을 확충하고 ▲漁港시설개발을 확대하고 ▲船質개량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나선 曺淇相、丁時采、朴翊柱、林芳鉉의원(이상民正) 申元澈、池槓道、柳晙相의원(이상民韓) 趙炳奎 李成一의원(이상국민)등은 水防대책의 미비점과 피해집계의 부정확성、항구적 재해대책의 수립、복구지원 기준의 재조정문제등에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첫 질의에나선 申元澈의원은『3억원이하의 피해市郡에 대해서는 지원도없고 피해보고도 하지말라고 지시한이유가뭐냐』、曺淇相의원은『피해를입은 농어민에게 단기성영농자금이아닌중장기저리자금으로 지원할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경제 5團體
"租稅부담 완화토록"

경제5단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稅制 개선작업은 민간부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大韓商議 全經聯 貿協 中小企協 經營者總協등 경제5단체는「81년도 세제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를 통해 현행 累進단계별로 되어있는 종합소득세제는 높은 인플레아래서 名目소득만 오르고 실질소득이 떨어지는경우라도 세금부담률을 더 높이는 구조적결함을 지니고있다고 지적、현행세율을 내리고누진단계별課稅금액의간격을넓혀중간소득계층의세율격차를좁혀야한다고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현행 종합소득 세율은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와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민세와 방위세를 포함하면 이들나라보다 훨씬 높은 세율구조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현재의 과세범위인 紙上 配當稅後 法人소득50%에서 25%까지로 완화하거나 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토록 하라고 건의하고 법인기업과 개인기업간의 소득세부담률이 소득액 5억원일경우 법인은 86·6%、개인은76·4%로 10·2%의 차이를 보이고있는점을감안、법인에대한 배당세액 공제율을 높이라고 주장했다。

水災民·추석 不遇이웃 도웁시다

月末까지접수

금번 中·南部지방을 휩쓴 태풍애그니스호는 수많은 同胞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으며 結實을 눈앞에 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어 農民들의 가슴을 처절히 멍들게하여 名節인 中秋節을 앞두고 더욱 이들을 슬프게 하였읍니다。

정부당국은 이에 최선을 다하여 구호대책을 펴고 있읍니다만 여러분 전국민도 水災民과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뻗쳐야 하겠읍니다。

뜻하지 않은 災害로 슬픔과 실의에 빠져있는 겨레를 돕는 일에 전국민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募金期間 : 9월말까지
◎接受處 : 한국일보社 서무 (전화722-4151)

1981年 9月 9日
韓國新聞協會
한국일보社 편집국

波勞組 중앙執權制로

강력투쟁體制…바웬사勝利

【그다니스크7日UPI聯合=聯】 폴란드 자유노조 대의원 8백92명은 제1차 전국대회 3일째인 7일 자체전격구조결정투표에 들어가 전국정책결정위원회에서 집행부를 분리시키자는 지방분권적 헌장개정안을 부결시켰다。이로써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주장한 바웬사에 승리를 안겼다。

자유노조 전국대회는 현일의 새노동법 제정및 자체권력구조개편등을 토의하기위해 당초 3일간예정했던 회의기간을 이틀간 연장、9일까지 계속할것으로알려졌다。

강한 정치색을 띠면서 효과적 투쟁을위해 중앙정권체제로 틀이잡혀간 자유노조는 대회에 제출된 정의문초안을 통해 새로운노동법의 제정을 촉구、의회가 공산주의식노동법을 수정없이 채택할경우 의회자체를 보이코트할것이라고 위협했다。

노조지도자들은 우회보이코트운동이 9백50만 노조원들에게 현 의회의입법기구로서의 정통성을 부인하도록촉구함은 물론 새로운 의회선거를 요구하는것까지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자유노조 지도자들의 발언은 앞서 자유노조는 현재 폴란드에서 진행중인 혁명의 주체세력이라고 선언한것과 함께 노조의 반체제적성격의 일면을 엿볼수 있게하여 주목된다。

새 議會選擧도 요구

借款1百億弗요구

정부、각료회담서 年20億弗線

정부는 10·11일 이틀동안 열리는 韓日정기각료회의에서 일본측에 요청한 60억달러의 對韓公共차관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세우고일본측에 對韓安保經協의 필요성과 誠意있는자세를 촉구할 계획이다。

회의개막을 이틀을앞둔 8일 정부의한고위관계자는『상업차관 40억달러를 포함해 1백억달러의 經協요청은 제5차 5개년계획기간중 年20억달러의 借款을뜻하며 이정도의 資本移動은 日側으로볼때 東北亞의 경제적번영과 안정을 위해서도 不可缺한것』이라고 밝히고 특히『東北亞가 共産化될때에 일본이 치러야할 代價를생각한다면 일본으로서는 너무도 가벼운부담』이라고 對韓經協액수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美軍이 1개사단을 외국에 주둔시키는데 年10억달러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전하고『일본이 享有하고있는 東北亞안전의 막대한 혜택에 비추어 年12억달러의 對韓公共차관제공은 일본이 말아야할安保부담에 상당하는 몫이라고도 할수없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離任伊大使에 全대통령 叙勳

全斗煥 대통령은 8일 하오 靑瓦臺에서 마리오·크레마 駐韓이탈리아대사의 離任예방을받고 修交훈장 光化章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盧信永외무、金容烋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蘇軍 모의戰鬪돌입

【모스크바7日聯合=聯】 2차대전이후 최대규모의 병력과 함대를 동원、폴란드 국경지역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있는 소련은 7일 함대와 병력을 둘로나누어 가상적과의 모의전투훈련에 돌입했으며 주말께 廣域작전에 대비、훈련의 熱度를 일층 가열시키고있다。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약10만병력이 동원된「자파드(서부)81」 작전훈련에서 소련함정들이「南軍」과「北軍」으로 兩分되어 라트비아 리두아니아및 에스토니아를 둘러싼 발트軍區의 서부 白러시아 공화국과 폴란드주변 발트海연안에서 모의전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農業賃金 인상률 物價상승 못미쳐

급격한 離農으로인한 농촌일손부족으로 해마다 높은오름세를 보이던 각종 農業賃金이 凶作에 따른 賣金사정악화와 경기침체 영향등으로 전체 物價상승률을 크게 밑돌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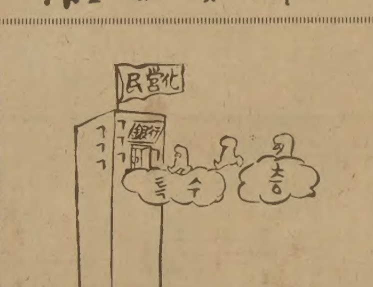
8일 農協이 조사한 지난上半期중 農村賃料金 현황에 따르면 농업임금은 남자성인이 급식물비를포함、하루 7천5백14원으로 전년말의 6천7백62원에 비해 11·1%、여자성인이 5천4백95원으로 전년말의 4천9백53원보다 10·9%가 각각 올라 지난80년의 27%、79년의 52%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것으로 나타났다。

또 木手와 미장이의임금도 1만5천3백98원과 1만5천1백15원으로 11%와 14·2%가 각각 올라 전년의 34%및 33% 인상률에 비해 크게떨어졌으며 搗精料및 運賃도 13·2%와 14·6%상승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地平線

명절을 며칠앞둔 탓인지 어수선한 얘기가 들려오기도하지만 그 얘기 토막속에 착하고 용감한 시민들—특히 고교생들의 미담이 담겨있어 듣기에 흐뭇하다。▼엊그제대낮 신설동서 칼을들고 난동을부린 소매치기들이 바로 이런 시민들에의해 타진되었다。 버스에서 뛰어내린 운전사윤동필씨의 재빠르고 용감한활동이 우선박수를받을만하였다。 도망가는범인을뒤쫓은고교생과시민이 20명이나되었고、칼에 찔리면서 끝내 범인을 붙잡은 姜茂순경、택시에 범인을 태웠다가 기민하게 차를 검문순경앞에 세운 李進雨운전사등 모두가 시민들이 목말라하던 [illegible]을 발휘하였다。 옆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모른체하고、소매치기한테 칼부림을당해도 나만 피해를 안입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살아온 도시인심에 한가닥 싱그러운 바람이부는것 같다。▼외국 속담에 사회질서가 바르게잡히면 善人이 모범이되고 惡人은 내쫓긴다는말이있지만 우리사회도 질서가 잡히는것이 시민들피부에느껴지는것이다。우리 고교생들은 그동안 자칫하면 탈선의 대명사처럼 한때 알려지기도 했으나 이젠 시민들이 고교생을 보는 눈마저 달라지고있다。 지난5일밤에도 산책하던 아베크를 과도로위협、금품을털고 도망가던 강도범을 여의도고교생 8명이 추격、격투끝에 붙잡은 일이 있다。 백마디의 교양강좌보다 이처럼 고교생들이 보여준 자기희생정신、공동의식은 좋은 본보기가 되었음에 틀림없다。▼能狼難敵多衆이란 말이 있다。 비유가 좀어색하지만 옛말이라 그냥 인용하면 아무리 사나운늑대라도 어진사람여럿한테는 당하지 못한다는 말이다。우리사회엔 때묻지않고 순수하게 자라는 고교생이 백만이나 있다。학교에서 배운그대로 정의감에 불타는 고교생들이 있는한 소매치기가두려울것도 없거니와 고교생아닌대학생、일반시민들도우리사회를 지키려는 협동심이뒤지는 것은 아니다。 소매치기나 강도가 발을붙이지못하는 사회란 경찰관의 힘만으로 만들지는 못한다。시민들이 협력하고 사회질서가 바로잡혀야 치안도 그만큼 튼튼해지는 것이다。▼그 치안비상령속에맞은 추석달처럼 용감한시민、용감한 고교생이 더 많이 떠오르면 이사회는 그만큼 더 밝아질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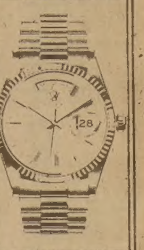
社會漫評



문턱이 원체 높아서…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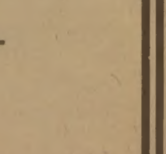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450
은 : 온스당 US11.0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노년회단풍놀이

울긋불긋 꽃송이처럼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 노년회원들을 모시고 따우즌 아이일랜드로 보트를 타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감사하며 즐기시는 하루가 될줄로 압니다. 회원 여러분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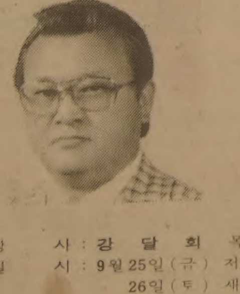
— 아 래 —

일　　시 : 1981년10월3일(토요일)
출　　발 : 아침8시
도　　착 : 저녁9시
장　　소 : 따우즌 아일랜드(THOUSAND ISLAND)
회　　비 : 1인당·$18.00(버스, 보트비 포함)
점　　심 : 각자지참(점심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안에서 하게 되므로 냄새나는 음식은 꼭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신　　청 : 노년회 사무실(755-8079)
마　　감 : 9월25일까지
집합장소 : 노 년 회(20 MOBILE DR.)

한국노년회 회장 정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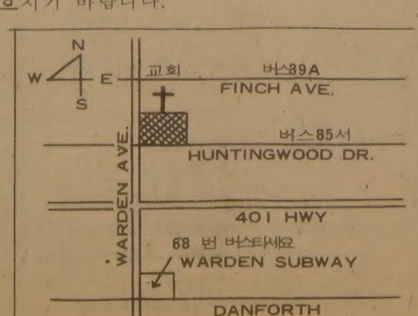
심령 대 부흥회

할렐루야!



우리 각 교회와 교민성도 여러분들께 영육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번 본교회에서는 추기 심령 대 부흥회를 하오니,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　　사 : 강 달 회 목사
일　　시 : 9월25일(금) 저녁7시30분
26일(토) 새벽5시30분
낮11시
저녁7시30분
27일(주) 새벽5시30분
낮 1시30분
저녁7시30분
28일(월) 새벽5시30분
저녁7시30분
장　　소 : 웨슬레 감리교회(2385 WArden Ave. Scaborough Ont.)
담임목사 : 여 웅 순
전　　화 : 444-8343



웨슬레감리교회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濠「말고기事件」政治問題化

對美수출 議會에 特調委구성

病死고기등 僞裝輸出

業者·公務員짜고 5년간 눈감아

【멜번8日UPI·AP聯合=聯合】오스트레일리아 연방경찰은 말고기와 캥거루고기를 쇠고기로위장수출한 사건과 관련、쇠고기수출업자 리처드·하먼드(35)를 20건의 서류와 검인을 위조한 혐의로 7일 밤체포했다。 오스트레일리아정부는 수출업자의 체포와는 별도로 위장쇠고기수출사건의 조사를 계속하기위해「특별조사위원회」구성을 8일 발표했다。

피터·닉슨 1차산업상은 의회에서 정부가 조사特委를 구성했다고 밝히고『쇠고기위장수출 추문은 이나라 쇠고기수출산업을 크게위협하고있으며 이위법행위에 공직자의 관련혐의가있어 사태가 더욱심각하다』고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한신문은 비료와 애완동물 사료로쓰는 말고기、캥거루고기등 저질육이 쇠고기로 위장수출됐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쌍방의 종사자들이 뇌물을 받은혐의가있다고 보도했다。

퍼드(54)라는 한정육업자는 일간지「오스트레일리안」에『자기가 부정한 고기를 수출하려가 사실을 알고이를 당국에 고발하려하자 회사측은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4천5백달러와 새차및 회사주식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서부오스트레일리아정육산업노조회원인 그는 도살장에서검사관에의해 불합격품 판정을받은 고기가 비밀리에수출화물로 반입되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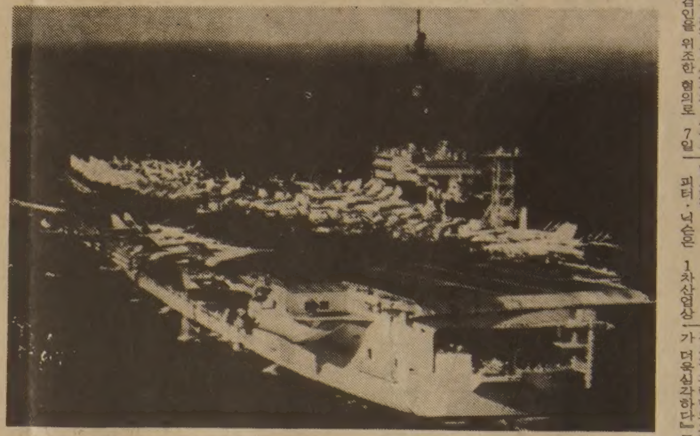
그는 또 3회나 이사실을 1차산업성관리에게 말했으나 이사실이 공표되기를 꺼리는 관리들에의해 묵살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부정육이 지난 5년동안이나 계속 수출됐으며 1차산업성당국도 이사실을 알고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간인 헤럴드紙도 8일자에서 부정육은 빅토리아지방의 폐사도살장에서 나온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신문은 이부정육은 비료용이거나 돼지、닭의 사료용이라고 말했다。특히 폐사도살장에서 나온 부정육은 죽은 동물의 고기여서 사료시장에서 조차 팔수없는것이었다는것이다。

멜번에서 압수되어 폐기된 2·천상자의 고기는 동물이도살장에오기전에죽어식용으로는불가능한것으로밝혀졌다。



◇戰鬪機충돌사고 빚은 美航母 美항공모함 키티·호크함상에서 6일 2대의 제트전투기가 충돌, 함상승무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키티·호크艦上7일AP電送=聯合】

오늘 美·이 頂上회담

베긴訪美 兩國緊張상태 改善

【워싱턴7日聯合=聯合】美國을 방문중인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은 9일 레이건美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지난 56년이후 최악의 긴장 상태에 놓여있는 양국관계의 개선을 모색한다。

레이건美행정부와 최근 재출범한 베긴수상의 이스라엘정부는 몇몇 쟁점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어왔는데 특히 미국의 2개월간에 걸친 對이스라엘 F16機 인도중지는 지난56년 당시의 드와이트·D·아이젠하워 美대통령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국유화 운동을 비난한 이래 美-이스라엘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 넣었었다。

베긴수상의 訪美문제를 논의해온 미국과 이스라엘관리들은 美·이스라엘관계가 미묘한 국면에 놓여있음을 시인하면서 양국정부사이에 새로운 긴장이 일고있는만큼 양국지도자가 그들의 첫회담에서 맺게되는 개인적인 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될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외교는 中東에서의 경우 지도자들간의 개인적인 우정과 신뢰의 관계가 한층 더 중요한 작용을 해왔다。

美국무성의 한 관리도『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은 레이건 대통령과 베긴수상이 서로를알고 美-이스라엘의 밀접하고 생산적인 실무관계를 촉진할 우정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4만여 回教寺院 전면감독

이집트政府、反政저지 强硬조치

【카이로7日UPI=聯合】1천5백여명의 과격종교인및 반정부지식인들에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시작한 이집트정부는 7일 종교의 반정부활동을 막기위해 정부가 4년만에 회교사원을 감독하고모든 회교성직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조치를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카리아·엘·바리 이집트 종교상은 대부분 종교단체가 세운 4만여 회교사원을전면 감독하기 위한 계획을위해 1천2백5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하고 이들 종교단체의 반정부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같은 조치는 회교사원이비회교적인목적에이용되는것을 막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

말래카海峽 비상경계령

인터폴、빈번한 해적行爲에 대처

【싱가포르7日AFP=聯合】국제경찰기구(인터폴)는 최근 싱가포르남쪽 해상에서 항해선박들에대한 해적행위가 빈발하고 있는것과 관련、이해역일대에 비상경계령을 내린 것으로 7일 보도됐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수역사이의 좁은 해로인 말래카해협에서는 최근 6주동안 각국유조선및 컨테이너선에 대한 최소한 4건의 해적행위가 발생한것으로 앞서보도된바 있다。

인터폴은 이지역의 해적들이 조그만 섬 한개를 거점으로 삼고 있음을 틈타 부근을 항해중인 각국선박에 접근、금품을 강탈도주하는 행위를 벌이게 된것으로 믿고있다。

메아리

8일이 백로고 12일이 추석이다。태풍이 스쳐간 다음의 날씨는 아침 저녁이 선선하고 낮에는 복중을 방불케하는 더위다。

해가 중천에서 내리 쬐는 동안은 30도에 가까운 열기로 거리가 달아 올랐다가도 그것이 설핏하면 날씨는 금새 선들대기 시작하는 것이 요즘의 일기다。

서울의 연산너머로 그렇게 세차게 솟아 오르던 여름의 뭉게구름은 예제 보기가 어렵게 되었고 하늘은 쪽물을 퍼부은듯한 푸르름으로 개서 시선을 그제 없는 심연으로 빨아들인다。

늦더위가 있기는 하나 그것도 잠시일뿐 아침저녁은 춥도 덥도 않아서 한해를 두고 가장좋은 절계가 지금부터 열리려하고 있다。

가로수의 플라타너스나 은행잎새에도 이제 병염이 높아서 제풀에 지고 있는것이 미구의 무서리를 알리는 염서로만 보인다。아마도 이렇게 병염이 지다가 어느아침 갑작스런 무서리로 노랗게 단풍들게 될것이다。

아침 저녁이 선선해지고 밤에는 귀뚜라미며 쓰르라미와 같은 가을 풀벌레소리가 자욱한데

가을 想念

보름 가까운 달이 하계를 비치고 있는 정경은 가을이 완연한데 날이 새고 볕이 부시는 대낮에 보면 아직은 가을빛 보다는 여름의 꼬리가 직신대는것 같은 상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렇게 백로가 지나고 추석이 미구에 닥치는데도 절계가 가을과 여름의 어간에서 엉거주춤한듯이 느껴지는것은 월력탓으로 늦더위가 들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과일가게에는 제물에 익은 홍시가 나돌고 포도송이도 탐스럽게 쌓였으며 복숭아에 자두며 풋밤등이 새로운 절계에 걸맞는 입맛을 돋우어 보기만으로도 푸짐하다。

그러나 다른한편으로는 모진 태풍의 피해로 모처럼의 농사를 뻘물에 앗기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집과 가산까지를 잃은채 망연자실해있을재민들에 생각이머물면 이 좋은 가을날도 금시 암울한 수심의 구름으로 어둡게 가리어지는듯 하다。

너나할것 없이 이번 추석에는 재민들도 함께 명절을 즐길수 있도록 십시일반의 정의를 베풀때 이기도 한듯하다。

白堊館 보좌관들 權力암투

「3巨頭」國防費增減싸고 不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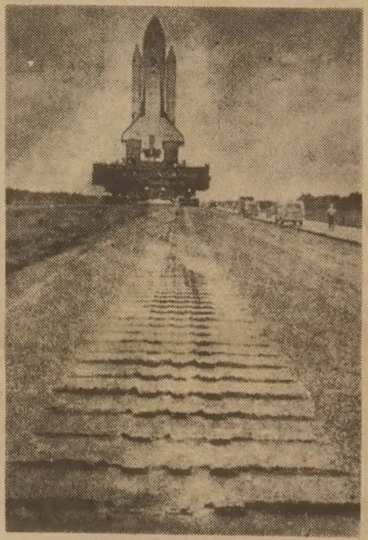
미즈顧問·베이커室長·디버次長등

【워싱턴7日=曺淳煥특파원】레이건 미 대통령의 1개월에걸친 여름휴가로 백악관의「3거두」보좌관간에 내부 권력암투와 의견분열이 노정 되었음을 백악관관리들이 말했다고 뉴욕·타임즈紙가 7일 보도했다。

미즈백악관고문、베이커백악관비서실장、디버비서실차장등 세보좌관이 레이건행정부 발족이래 아침 저녁 두차례 만나 주요國事를 협의하고 대통령에 건의하는등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으나 미국방비 증감문제를 둘러싸고 이「3거두」의 협의기능에 처음으로 틈이 벌어져 불협화음이 일고있다고 뉴욕·타임즈지가 보도했다。

미즈 대통령고문이 이83~84회계연도분의 국방비책정을 경감할 계획이 없다고 지난달 기자회견서 밝혔으나 그며칠후에 베이커 백악관비서실장은 83~84회계연도 국방비중 3백억달러가 삭감될것이라고 기자들에게말했다。

한편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는 국방비 증감문제를 둘러싸고 옛날부터 레이건의 보좌역을 해온「캘리포니아派」를 대표하는 와인버거국방장관과「워싱턴派」를 대표하는 베이커 비서실장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있다고 최근호(9월14일자)에서 보도했다。



◇5천톤짜리 우주선 발자국

오는10월 2차비행을 떠날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무한궤도차에 실려 39호 발사대로 옮겨지고있다。케이프·캐나배럴39호발사대로 향하는자갈길에는 우주선의 중량을 이기지 못해 깊은 자국이 패었다。우주선과 운반차의 무게가 4천9백70톤이니 8톤 대형트럭으로쳐도 6백대가 넘는 무게이다。【UPI】

세네갈、갬비아와統合

내년초初기해「세네갬비아」로

【다카르8日AP=聯合】압두·디우프 세네갈 대통령은 7일 세네갈은 내년정초를 기해 인접국인 갬비아와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우프 대통령은 지난주말 AP통신과의 회견에서 세네갈·갬비아 양국을 연방국인『세네갬비아』로 통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양국경제에 이익이 될것이라고 내다봤었다。

수단에「非常」선포

反政세력 檢擧선풍

【런던8日AP=聯合】수단은 7일 현 가파르·누메이리대통령정부에 대한 군부 일각의 반란설과 함께 수도 카르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반란세력에 대해 대대적인 체포작업을 벌이고있다고 리비아의 JANA통신이 보도했다。

런던에서 청취된 이통신은 카르툼發 기사에서 탱크들이 카르툼에 이르는 모든도로를 차단하고 교량과 수로가 봉쇄되는한편 카르툼 시내의 군사령부와 내무성건물이 방책에 둘러싸여있다고 전했다。

反國家 음모 主動者는 蘇유학 카이로大 교수

사다트、國家安保위해 改革단행

基督·回教間 流血유발 비판勢力 침묵시키려

콥트敎선 政府측「敎皇퇴위」에强硬

인 사이드

사다트이집트 대통령이 5일 단행한「국가안보수호」를 위한 대규모 개혁조치는 표면상 회교도와 기독교간의종파분쟁으로 유발되는 혼란을 종식하여 안정을꾀하자는 이유를 달고있다。

이집트정보기관은 지난 6월 카이로에서 발생했던 회교도와 기독교도간의 대규모 유혈충돌이 소련에서 연수한 콥트교도인 대학교수가 국민총화를 깨뜨리기위해 자행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따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교수가 이슬람에대한 협구를담은 전단을배포하자 회교과격 청년단체가 분격, 즉각 반박전단을 전국 회교도에 배포하여 유혈폭동이 빚어졌다는것이다。

이집트정부는 회교과격단체와 기독교도인 콥트敎가 종교를 정치목적에 이용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집트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회교도와 기독교도의 불화가 있어왔다。이집트의 기독교도인 콥트교도는 모두 4백50만명。총인구 4천2백만명중 나머지는 모두 회교도로 콥트교도는 회교도의 10% 정도이다。

이번 숙청의 빌미가 되었던 지난6월의 유혈충돌에이어 7월과 8월에도 콥트교의 성당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있었다。

콥트교도들은 이집트 정부가 자기네 교황인세누다3세를 퇴위시키는등 초강경입장을 취했지만『세누다3세는 엄연히 우리의 교황』이라고 주장하면서『사다트의 진정한 목표는 회교 과격분자들이며 우리는 둘러리로 함께 매를 맞은것』이라고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인다。

◇콥트派 교황직에서 물러난 세누다 3세。

콥트교는 이집트의 독특한 기독교파로 이집트、이디오피아등 아프리카국가에 주로전파되어 있으며 전체신도들은 2천3백만명 정도로 추산되고있다。콥트교도는 세누다 3세를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하고있다。

사다트는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하는등 親美, 親이스라엘정책을 펴면서 아랍연맹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국내에서도 야당및 회교세력들의 강한 반발을받아왔다。

사다트는 자신의 정책을 비난하는 반대세력을 공산주의자나 반동주의자 혹은 종파주의자라고 공격해 왔다。

이번에체포된인사들중에는 이집트의 최대야당인 사회노동당(SLP) 부당수 헬미·무라드와 前알·아랍紙 편집국장 모하메드·세이갈, 과격 회교청년단체지도자 헬미·알·가자르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진보당(UPP)등 친소좌익 정당들도 黨舍를 수색당했고 黨報발간은 중지되었다。이집트는 아직도 1인당 국민소득이 5백달러에불과한 가난한 나라다。4천2백만 국민중 92%가 가난속에서 허덕이고있다。

사다트는 이같은 경제난속에서도 용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왔다。

그만큼 사다트의 힘은 월등했고 야당이나 회교과격파등 反政세력의 힘은 미약했기 때문이다。

사다트는 회교정통주의자들이 점차 정치세력으로 성장할것을 우려하여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朴永喆기자】

海外토픽

健康한아이로 출생

★胎內서 手術받은 아기

한 태아가 최근 미버지니아 허파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모친의 태내에 있으면서 의과대학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출생,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있다.

출산이전에 허파에 희귀한 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명된 이 신생아는 모친의 자궁에 있는 상태로 수술을 받아 세계의 주목을 끌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다는것。【리치먼드(버지니아州)=UPI】

젊음은 느끼기나름

★카터 日학생들과 對話

일본을 방문중인 카터 전미국 대통령은 지난6일 효오고(兵庫)현 미따에있는 간세이(關西)학원대학생들 1백여명과『젊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놓고 대화하는가운데『나이라는것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하는것이 문제』라면서『보다 중요한것은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자신만을위해 살지않는일』이라고 강조했다。

카터전 대통령은 일본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거나 회사엘 들어가면 이상을 잃은채 매우 보수적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인도에서의 자원봉사를 위해 68세때 평화봉사단에 가입한 어머니 릴리언여사의 예를 들면서『다른사람을위해 공헌하는것이 여러분의 목적달성에 도움을 준다』고 충고했다。【大阪=聯合】

世界의社說

막대한軍備 인플레誘發

●마이니찌 (日·5日字)

백악관은 최근 1984회계연도 예산균형을위해 83·84회계연도 국방비를 3백억달러 삭감해야 할것이라고 발표했다。우리는 그러나 이같이 미미한 삭감이 과연 예산균형을 유지하는데 충분한는지 의심치 않을수 없다。

만일 소련군사팽창이 현실이라하더라도 서방측이 실제 경제능력이상으로 군사비지출을 확대한다는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나 마찬가지다。만일 레이건행정부가『군사강국』을 만들기위해『經濟弱國』의길을 택한다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것이다。오늘날 국제정치에서 갖는 미국의 역할을 고려할때 미국의『군사강국』선택은 틀림없이 세계경제질서를 파괴시킬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레이건 미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막대한 군사비지출이 심각한 인플레를 유발하여 세계경제에 역효과를 줄것임을 강조하지 않을수없다。

現實化까지 오랜時間

●홍콩·스탠더드紙 (홍콩, 6日字)

캄보디아의 反베트남 3개저항세력간의 연합전선결성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對내외적인 문제에대한 대체적 합의가 있어야 할것이다。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캄보디아 영토내에서의 군사작전에있어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이연합전선구상은 키우·삼판이 지휘하는 크메르·루지 세력이 연합전선의주도권을 장악하지 않을까하는 시아누크前국가주석과 반공게릴라단체의 지도자인 손·산前수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이다。

새연합전선은 中共을 비롯한 여러나라의 실질적인지원을받아 효과적인 反베트남게릴라투쟁을 벌일수있겠으나 현캄보디아정권을 유지시키려는 베트남의 결의또한 만만치않으며 캄보디아주둔 베트남軍의 철수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反베트남연합전선간의 내부분열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브레즈네프 中性子彈 配置강행하면

蘇、"對應武器 개발"

【모스크바7日AP=聯合】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 브레즈네프는 7일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제국이 중성자탄의 서구배치를 강행할 경우 소련도 이에『대응할만한 무기』를 개발할것이라고경고했다。

관영 타스통신에따르면 브레즈네프는 이날 소련을 방문중인 베트남공산당서기장 레·두안과의 오찬연설에서『소련은 서방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지않고 오히려 계속 새로운 가공할만한 무기개발의 포기를 요구하고있다』고 전제한뒤『그러나 미국과 기타 나토국가에 그같은 무기가 등장한다면 소련도 이를 좌시하지 않고 이에 대응할만한 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레즈네프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8월 미국이 중성자탄의 개발결정을 공식발표한 이래 처음이다。

日 첫노벨賞수상자 유가와교수 死亡

【東京8日UPI聯合=聯合】일본의 첫 노벨상수상자인 물리학자 유가와·히데끼교수가 8일東京에있는 자택에서 74세로사망했다。

유까와교수는 1949년 東京大學재직중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었다。

YMCA 가을프로그램 안내

토론토한글학교(무료) 매주 오전10시반~오후1시
Bickford Park고교3층(9월26일 개학)
대상 : 유치원생부터

토론토영어교실(무료) 기초반및 회화반 매주 오전10시반~오후1시
Bickford Park고교3층(9월26일(토)개학)
대상 : 한글학교학생부형 · 노인 · 기타 일반인

웨스톤YMCA어린이학교(무료)매주 수요일 오후4시반 ~7시
Daystron국민학교

웨스톤영어교실(무료) 기초반및 회화반
매주 월·수요일 오후7시~9시 Daystron국민학교(10월5일 개강)

토론토토요학교(유료) 9월19일 개학~12월12일까지
매주 토요 오후2시~5시 YMCA임시회관
(15 Robina Ave. St. Clair와 Oakwood동북쪽 한 블럭)
미술교실—문안나선생외(온타리오미대졸업)
무용교실—김정숙선생(TV한국·아나운서)
태권도교실—이태우사범(4단)
바이올린교실—이진화선생
피아노교실—노정심·김영훈선생
기타교실—권혁일선생
(사교춤 강습과 수영강습·미용체조반은 준비중에 있읍니다.)

단풍관광 10월3일(토) 오전9시~오후8시
행선지 : 3만섬
인 원 : 선착순·약90명
회 비 : 어른 $22 노인 $21 어린이 $20 (버스료및 3시간 선상관광료)
버 스 : 난방과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는 관광버스
후 원 : 와이즈멘즈클럽(알파)

성경연구반 매월 첫 일요일 오전7시~8시반
강 사 : 조남유 목사《구약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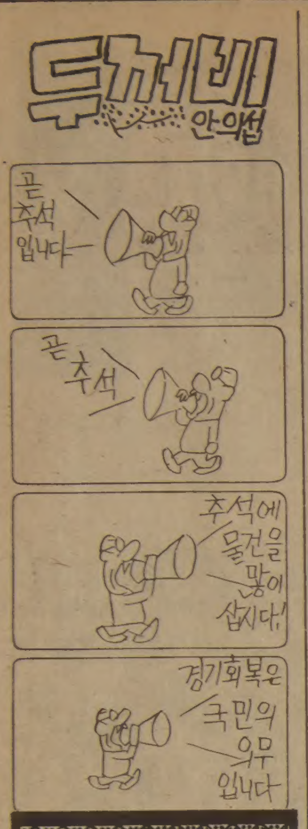
핼로인 의상만들기 강습회
아 침 반 : 10월15(목) 16일(금) 오전9시반~오후2시반
저 녁 반 : 10월14(수) 15(목) 16일(금) 오후6시반~9시반
강 사 : 배운숙 선생
강 습 료 : $25(부속대일체)
신청마감 : 10월8일

Y청소년합창단 매주 목요일 오후6시~8시
지 휘 : 안병원 교수 반 주 : 김진숙 선생
젊은 이를 위한 음악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입니다.

와이즈멘즈클럽 교포사회 중견 인물로 구성된 YMCA의 봉사클럽으로써 월1회 모임을 가짐.
와이즈멘즈클럽(알파)가 주관하는 현대한국작가 초대전이 Sheraton Hotel서 10월8일~13일 오후6시부터 있으며 베타가 후원하는 추석윷놀이가 Cedarbrae 도서관에서 있음.

※집집마다 다니는 스쿨버스가 한글학교와 토요학교를 위해 운영됩니다. 이용 희망자는 속히연락 해 주십시오.
※토요교실 회비는 한집서 두아이 이상이 등록할때에는 할인 됩니다.
문의처 : YMCA(536-1166) 미스터 김(15 Rabina Ave. Toronto, M6C 3Y4)

코리안 YMCA 총무 김 창 열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生活下水도 淨化槽시설 의무화

환경청 法개정
아파트등 糞尿·汚水등 兩分처리

앞으로 아파트등 대단위집단주거지역의 일반 생활하수(下水)도가 정화처리 시설을거쳐 방류하도록의무화된다.

8일 환경청은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분뇨를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한 방안의하나로 현재 단일화돼있는 액상폐기물정화조 (분뇨정화조) 설치규정을 분뇨정화조와 오수(汚水)정화조시설로 나누는것등을 내용으로한 오물청소법개정안을확정, 국무회의에넘겼다.

환경청은 현행법이 그간 오물배출량의 급격한 증가와 처리기술의 변천을 따라가지못하고수질오염방지면에서 실효가 적었다고 보아 이를 대폭개정, 보강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청에 의하면 최근생활오수배출량의 급격한 증가로 지난 79년의 경우 전국1일 평균 6백69만6천톤의 전체 폐수중 생활오수가 62·3%인 4백17만3천톤을 차지, 공장폐수(28·9%), 축산폐수(4·8%)보다 오히려 수질오염의 주범이되고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환경청은 오수정화조시설 규정에관한 법근거가 마련되는대로 시행령과 규칙을통해 일정인구이상 주거지역 단위의 생활하수정화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해 나가기로하고, 일차로 아파트단지부터 이를 적용할방침이다.

환경청이 마련한 개정법안은 이밖에 현재 등록제로돼있는 분뇨정화조청소업을 오물처리업에 일괄포함시켜 허가사항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불량정화조의 제조유통을 막기위해 현재 액상폐기물정화조설계·시공업자가제조까지 맡도록 돼있는것을 정화조제조업만을 따로떼어 등록제로해 역시 요건을강화키로했다.

한국船員 12명실종 1명死亡

모로코船籍이젠號 기관실浸水·침몰

우리나라 선원22명이탄 모로코선적 저인망어선 1척이 모로코 근해에서 조업중 침몰, 1명이 숨지고 12명이실종됐다.

지난 6일새벽2시30분께 모로코서안에서 22마일 떨어진 대서양(북위23도10분·서경16도35분)에서 조업중이던 모로코선적 이젠호(2백71톤·선장·張대홈·32)가 기관실에 침수와 함께 불이 나면서 파도에 휩쓸려 침몰, 배에타고있던 우리나라선원 22명중 조리사 金영삼씨(35·부산東萊區 蓮山1洞107-1)가 숨지고 1등항해사 高한범씨(27·부산南區水營洞148의4)등 12명이 실종됐다.

이젠호의 선원송출회사인 大林水産(본사·서울中區武橋洞11)의 라스팔마스기지에서 8일상오 본사에 보고해온것에 의하면 이젠호는 이날 같은 회사소속인 어선 5척과 함께 선단을 이루어 조업중 그물끝에 달려있는 그물전개판(OTTER)이 암초에 걸리면서 기관실이 침수돼 합선으로 불이 나면서 기관이 정지돼 파도에 휩쓸려 침몰했다는것.

사고가 나자 같은 선단의 어선들이 선장 張씨등 10명을 구조했으나 이중 조리사 金씨는 구조직후 숨졌으며 나머지 선원들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것이다.

◇이젠호 침몰소식을 듣고 大林수산 부산사무소에 몰려온 사망·실종선원가족들이 통곡하고있다. 【釜山聯合】

晋州市 수해 더심해

南江댐 홍수조절기능 발휘못해

【晋州=聯】晋州市를 수해상습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晋州晋陽湖에 건설된 南江댐이 홍수조절기능을 제대로못해 오히려 晋州市의 수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놀라운사실이 밝혀졌다.

晋州市와 건설부가 지난70년부터 이 댐준공에 따른 南江유역 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내 중심가를 가로질러 흐르는 南江의 강폭을 6백m에서 3백m로 좁히자 댐의 방류량도 크게줄어들어 南江하류지역의 하상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당초 장마철에 3백㎜정도의 비가 내릴경우 南江으로 흐르는 1만5백70톤규모의 물가운데 81%인 8천5백70톤을泗川灣방수로로 흘려보내 南江하상을 70㎝이상 낮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댐이 완공된지 12년이 지난현재 南江의 하상이 댐건설 이전보다 오히려 2m정도나 높아져 댐의일부기능이 상실됐다.

이같이 南江하류의 하상이 높아진것은 강폭축소에 따른 방수량의 감량으로 강물이하천저류의 운반 기능을 잃었기 때문인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댐건설당시 南江 본류쪽으로 초당 2천톤의 물을 흘려보내 南江의 퇴적을 막을수있도록 설계했으나 晋州市는 지난70년 촉석루아래에있는 晋州橋에서 晋陽郡大谷面까지의 강변에 제방을쌓아 晋州市將臺지구 5만평, 上大·下坪지구 88만2천평등 총1백18만6천평을 매립,택지와 공장부지·농경지를 조성하면서 강폭이 절반으로 대폭 줄었다.

검소한秋夕 캠페인

大邱市와 경북도는 8일검소하고 건전한 추석보내기운동을 벌이도록 산하 각기관에 시달했다.

전국舞臺「布施」1억 詐取

無籍 사기僧 2명 拘束

"三府要人고문 千萬佛子 護國안보 大法會연다" 宣傳

정부기관·佛敎界후원 假裝

호텔에 사무실·下手人고용「시주」거둬

僧籍박탈 2人組전과자…엽색행각도

호국안보(護國安保)를 위한 전국불교신도대법회를 열겠다는 명목으로 전국을 무대로 사기극을 피며 불교여신도와 의사, 건축업자등으로부터 1억여원을 사취한 무적승려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8일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 사기혐의로 구속된 전직 승려는 사기전과3범 李珍秀씨(56·仁川市北區石南洞232의35)와 전과9범 金成器씨(52·주거부정).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4월 서울鍾路區光化門에있는 세종빌딩6층에 자칭「전국수륙(水陸)대국제봉행위원회」란 사무실을 차린후 李씨가 준비위원장, 金씨가 운영관리실장직을 맡고 하수인 7~8명을 채용, 5개월동안 전국을 누비며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이들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汝矣島5·16광장에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등3부요인을 고문으로모시고 전국의 고승 2천여명과 불교신도 2백만명등 1천6백만불자가 모여 거국적인 불교대법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허위선전을 했다.

이들은 이같은 사업계획을 팜플렛까지 만들어 돌렸으며 여기에는 후원단체로 내무부, 문공부등 정부기관과 언론기관, 그리고 임원으로 尹古庵, 李西翁, 姜昔珠스님, 해인사주지黃道堅씨등 불교계인사들까지 총망라돼 있었는데 모두가 이름을 도용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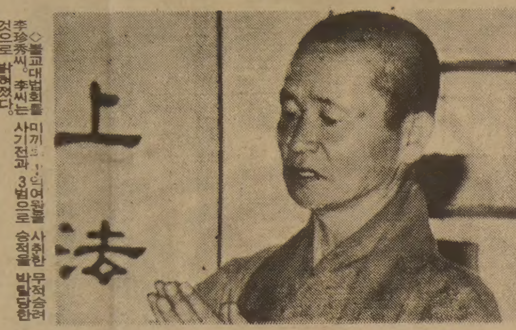
이들은 이같은 사업계획을 내세워 50억원을 모금, 착복하려고 계획했었다는 것인데 사기를당한 불교여신도 金모씨(서울西大門區)의 경우 7회에 걸쳐 7천5백만원을 빼앗겼으며 충북陰城의 동국의원 원장任京臣씨는 행사수익금으로 불교병원을 지어주겠다는데 속아 7백만원을 사취당했다.

또 丁在熙씨에게서는 汝矣島행사장의7억원짜리가건물공사를 하청주겠다고속여 2천2백65만원을 사기했으며 陳義洙씨에게는 선전간판공사를 미끼로 2백50만원, 李宗默씨에게는 행사때 호신불(護身佛목걸이) 50만개를 납품케해준다면서 2백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이들중 주범 李씨는 晋州海印대학(현경남대학)종교학과를 52년에 졸업, 晋州正法寺, 서울東大門蓮花寺, 濟州觀音寺주지등을 역임하다 지난5월30일 승적을 박탈당했다.

金씨는 井邑內藏寺 寺敎科를 졸업, 南海龍門寺 주지와 조계종13敎區 감찰등을역임하다 74년9월23일 협사입건됨에 따라 역시 승적을 잃은 전과자인것이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사기한돈으로 자가용을 전세내 엽색행각을 일삼아온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대법회를 미끼로 1억여원을 사취한 무적승려 李珍秀씨. 李씨는 사기전과 3범으로 승적을 박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高位層참석 거짓말

李珍秀·金成器씨의「演出劇」

불교대법회를 미끼로한 李珍秀씨(56)와 金成器씨(52)의 대규모사기는 정부고위층과 정계인사의 이름을 팔았다는점에서 지난번 적발된 한국노년복지회 사건과 비슷하다.

노년복지회사건때全대통령의 사촌동생 全禹煥씨를끌어들이고 정부요인들의 이름을 들먹였던것처럼 이들도 행사때 全대통령이 직접 참석, 치사를 할계획이며 3부요인은물론 정계, 언론계, 문화·종교계등 사회각계각층이 모두 후원하는것처럼 속였다.

행사후 利權미끼…女信徒 家産날려

거물급사인한 가짜방명록보여 현혹

또 독실한 신도들을 사무실로 불러 정부고위층들이 직접 서명한것 처럼 보이는 가짜방문록을 보여주며 기도하고 그럴듯한 행사계획표등을 내보여 감쪽같이 속게 했다.

이들은 피해자 들에게는『행사만치르면 불교계에서 저명인사가 된다』『행사에필요한 교제비를 대면 이권을 주겠다』는 식으로 꾀어 돈을 끌어냈다. 또『절을 지어주겠다』『불교병원을 짓는 자금을 대 주겠다』면서 솔깃해하는 사람에게는 신빙성을갖게끔 교묘한 속임수를 쓰기도 했다.

피해자중 여신도 金모씨는 주범 李씨와 어려서부터 한동네에 살아 의남매까지 맺은 가까운 사이로 7차례에 걸쳐 7천5백만원이나 뺏겼는데 점포와 전화까지 날리고도 많은 빚을 짊어질 정도의 피해를 당했다.

李씨는 金씨가 속이는것 같아 돈을 주지않으면『한번만 더보태주면 성공한다』『안줄테면 그만둬라』『지금까지 준돈은 못돌려준다』는식으로 협박까지 서슴지않았다.

이들은 모두 전과자로밝혀졌지만 사생활도 엉망이었다.

투숙旅館엔 私服·內緣의 妻두고 變身

주범 李씨는 50만원에 자가용을 전세내 낮에는 승복을입고 의젓한 고승노릇을 하면서 신도들을 만났다.

또 사무실과 가까운 C여관과 H여관에 승복과 사복을 각각 보관했다가 해가지면 사복에 가발이나온 동모자를 쓰고 내연의처집으로 달려갔다는것.

李씨의 내연의처는 올해 33세의여신도로 李씨가 찾아올때마다 돈을갖고 오지 않으면 문도 열어주지않을 정도로 포악스러운 사람이었다는 후문이다.

또 金씨도 여신도1명을 내연의처로 만들어 여관방을 전전했다는것인데 이들의 사기행각이 공개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같다. 【具用書기자】

公害 사업장 特別稅 부과

政府서검토

공해물질을 허용기준치 이상 배출한 사업장에는 환경오염세와 비슷한 성격의 특별부과금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있다.

8일 환경청에의하면 지금까지 허용기준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대해 1~3개월내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는것은 해당업체들이 연기신청을내 6개월~1년씩 시간만끌고있는 사례가많아 공해방지라는 면에서나 조업중단으로인한 국민경제상 손실이 크다는점이 부각되고있어 이를 해결키위해 환경보전법을 개정할필요가 있다는것.

따라서 환경청은 환경보전법 개정시안을 마련, 차관회의에 넘겼는데 이 시안에서 오염물질배출부과금 제도의 신설을 반영시켰다는것.

환경청은 이제도로 얻게되는 재원은 환경오염방지사업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있다.

개정안은 이부과금을 ▲허용기준의 초과율 ▲배출기간 ▲오염물질의 발생량 ▲오염물질의 종류등에따라 징수기준을 구분토록 하고있다.

果川에 投機바람

福夫人등 입주권프리미엄轉賣

경기始興郡果川面에세워진 서민용 주공아파트 공개추첨에도 투기꾼과복부인들이 무더기로 당첨된뒤 분양가의 20%가 넘는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고 있다.

8월30일과 지난1일 신청을 받아 7일 추첨을끝낸 경기 始興郡果川面官門里果川지구 주공 2차아파트분양때 서울의 투기꾼과 복부인들이 미리사둔 추첨전으로 적게는 3~5가구, 많게는 10가구이상씩이나 당첨돼 이곳 40여개 복덕방에 팔아달라고 내놓고있다는것.

이때문에 분양가 6백63만원~7백48만원짜리 7.5평형 철거민용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1백40만원까지 붙고 17평형(분양가1천2백25만원~1천3백83만원)은최고2백90만원까지 웃돈을주어야만 살수있는 현편이다.

聯合司 부사령관

어제 就任式가져

朴魯榮신임 한미연합군 부사령관의 취임식이 8일하오4시30분 周永福국방부장관과 尹誠敏합참의장, 위컴 한미연합군사령관, 3군참모총장등 많은 내외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연합사연병장에서열렸다.

"이겨레 歷史的운명 復活을"

天主敎 조선敎區설정 150周기념일

金壽煥추기경 談話

서울대교구장 金壽煥추기경은 천주교조선교구 설정1백50주년 기념일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빛나는 교회사를 자랑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각자 십자가를 지고 순교선열들의 장렬했던 길을 따름으로써 이겨레의 역사적 운명에 부활을 가져와야 할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담화문 요지이다.

민족사의 누룩이 됩시다.

우리교회의 이 오랜역사는 순교의 피로 얼룩진 가시밭길이었읍니다. 한국천주교회의 자발적교회설립 역사는 세계선교사에 드문 위대한 일이며 그 초기 교회신자들은 民本복지사상을 지닌 실학과 지성인들이었읍니다. 이로써 천주교는 새 이나라 역사에서 근대의 새벽빛을 열었으며 이겨레의 정신사 복판에 터를 잡아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 겨레는 지금 역사의 올바른 선도자, 양심의 구심점을 희망, 밝은 빛을 갈구하고있읍니다. 이 갈구를 채워줄 역사의 근본적인 발전을 이루기위해 변혁의 누룩을 찾고있읍니다. 오늘 이 겨레의 역사안에서 누가 누룩이 되어야하겠읍니까. 하느님의 법안에서 양심과 정의와 일치를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의 우리자신입니다.

◇金壽煥추기경

地方短信

全南·朝鮮大生봉사

全南大, 朝鮮大학생 1천2백여명은 도내 수해지역을 찾아 지난4일부터 연5일째 복구작업을 벌이고있다.

이들 학생들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가장 극심한 海南·高興·羅州·光山지방에서 오는 10일까지 복구지원을한다. 【光州】

모두좋이 위하여 生 <196>

趙善 作
禹慶熙 畵

灰色노우트 ㉘

출입문에 똑똑 노크소리가 나자 나는 얼핏 J씨를 떠올렸다. 아파트로 또 전화를걸었다가 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J씨가 서둘러 달려왔을 가능성부터 나는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문을 연 사람은 J씨가 아니었다. 선글라스에 콧수염을 기른 어젯밤의 유장훈 감독이 육중한 체구를 우뚝 세운 채 문턱 뒤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눈인사를 보낸 다음 잠시 나는 몸둘곳을 몰라 쩔쩔맸다.

유감독은 선글라스를 벗어들고 성큼 방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컸고, 잠든 사람의 의식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가 깨어나는지 유감독이 다시 말했다.

『숙녀가 방문하셨는데 잠만 자고 있어서 되갔소, 영?』

유감독은 책상 앞에 앉으며 이것 저것 책상 위의 종잇장을 뒤적였다. 그러다가 그는 나를 올려다보고 또 말했다.

『앉으십시요. 언제 오셨읍니까?』

『조금 전에요』

꾸중받는 생도처럼 서있다가, 나는 흠칫 놀라며 대답했다. 혹시 유장훈 감독도 나에 관해 알고 있을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허둥거리게 한 것이다. 나는 벽 한쪽 모서리에 가만히 쪼그리고앉았다.

그가 깨어나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는 흐린 눈으로 나와 유감독을 번갈아 보고나서 중얼거렸다.

『어떻게 된 거요? 두 사람은 또 어디서 어울렸소?』

『왜 이래요 이거. 와보니까 계시는구먼. 생사람 잡지마쇼』

유장훈 감독은 계속해서 책상 위의 종잇장을 넘기며 중얼거렸고, 그는 입맛이 쓴듯 미간을 좁혔다.

『그래애? 여긴 어떻게왔소? 아 J가 가르쳐준 모양이군. 그 친구의 친절본위는 알아줘야 해』

그는 투덜거리 듯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를 내려다 보았다.

『옷 좀 갈아입읍시다』

요컨대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는 뜻이었는데, 그는 그런 말을 다분히 위압적인 기세로 했다.

유감독이 얼핏 그와 내 눈치를 살폈다. 어떻게할까 망설이다가 나는 조금 벽쪽으로 돌아앉았다. 하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는 벽에 걸린 옷을 떼어냈다.

『회사에는 들렀다 오는거요?』

『전화만 했어』

『오케이야?』

『오후에 들르랍니다』

끄덕이고 나서 유감독이 말했고, 그가 흡족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됐군』

나는 그들이 무엇에 관해 말하고 있는가 알 수 없었다. 비즈니스일 테지만 나는 그 이상의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귀찮았다. 그들은 나를 버려 둔채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몇 마디 더 계속했다.

『크랭크 인을 이월 일일로 잡았다는 거야. 그때까지 책이 떨어지긴 어렵다고 했더니…』

『젠장할. 그러니까?』

『날짜가 그렇게 나왔다는 데야 어카겠소?』

『점을 치니까?』

『좋은 게 좋은거 아뇨? 기왕 내려가는 길에 몇 커트 찍으면 되지뭐. 찍는다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가 비누와 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겨들고 방을 나갔다. 방을 나가면서 그는 나를 돌아보고 무슨 말인가 할듯 하다가 그만두었다.

심 령 부 흥 회

강사 : 최 헌 우 목사

약력소개 :
● 총회 신학대학 연구원 졸업
● California신학원졸업(석사)
● Fuller신학교 박사코스연구중
● 서울원동교회 시무
● 현재 L.A.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담임(장년400명교인)

일 시 :
10월1일(목)오후7시30분(저녁부흥회)
2일(금) 〃 (〃)
3일(토) 〃 (〃)
4일(주)오전5시30분(새벽기도)
오후1시 —(대예배)
오후7시30분(저녁부흥회)

BATHURST ST. / 교회 / COLLEGE ST.

전화연락 : 249-5461
961-8361
281-9991
담 임 : 정 관 일 목사
교회주소 : 502 BATHURST ST.
TORONTO, ONTARIO
M5S 2P9 CANADA

중앙장로교회

1981—82 학년도
씨알학교 학생모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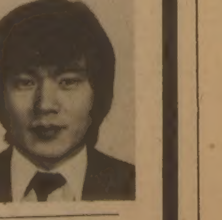
기 간 : 1981년9월26일부터 1982년6월19일까지(32주간)
시 간 : 매주 토요일 아침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장 소 : DEER PARK PUBLIC SCHOOL, 23 FERNDALE AVE.
자 격 : 유치반부터 8학년까지
프로그램 :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한국어, 합창
1시부터 3시까지 —예능교실, 영어교실
과목과강사 : 한국 어 : 김숙희, 김옥자, 이영자, 여정자(한국적인 정신, 풍습, 예절 생활용어등에 중점을 두어 말과 쓰기로 표현을 지도함)
합 창 : 유회자(내년에 계획하는 한국방문의 모체가 될 것임)
피 아 노 : 여정자(초보자를 위한 악보읽는 법, 리듬등에 중점)
바이올린 : 임혜영(수즈키, 지도방법 사용)
미 술 : 김옥자, 이영자(어린이 지능과 상상력 발달에 중점)
무 용 : 김미영, 오재윤(철저한 기본동작과 독무, 군무등)
태 권 도 : 이태우(신체단련을 통해 인내력과 자신감 양성)
영 어 : 조덕인(독해력 중심 2~8학년 만)
수 업 료 : 한국어, 합창은 무료. 예능과 영어교실은 한 학생이 두과목씩 택할 수 있으며, 1년 수업료를 두번으로 나누어 연수표(Post Date Cheque)를 등록하셔도 됩니다. 학생1명—160달러, 학생2명—300달러, 학생3명—420달러
학교버스 : 동쪽과 서쪽에서 한 버스가 12명 이상일 경우, 학교버스를 운영합니다. 부모님 신청에 따라 버스로선을 결정하오니 9월22일까지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요.
신청전화 : 여정자 선생님 441-2986
버 스 비 : 학생1명—128달러, 학생2명—250달러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江陵商 決勝戰서 격돌 安養工

전국中高축구 東大附高·信興實꺾고

골찬스4번 놓치고 1失
後半 2分동안 2골成功

安養工高와 江陵商高가 제86회 청룡기쟁탈 전국 중고 축구선수권대회 고등부결승전에 진출, 9일하오 3시반 서울운동장서 패권을걸고 한판을 벌이게 됐다. 안양공은 7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대회 고등부 준결승서 신예 東大附高와 격렬한 공방전끝에 2—1로 역전승, 처음으로 이대회에서 결승전에 올랐다. 한편 신예 江陵商은 작년도 이대회 우승팀 信興實高와의 준결승전서 전반10분 골을빼앗겨 1—0으로 뒤지다가 후반29분과 35분에 FW 金信榮이 극적으로 연속골을 터뜨려 2—1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江陵商도 투지로 信興에 역전승

결정적인 득점기회를 놓치면 위기를 맞게된다. 안양공은 경기시작 20분사이에 4차례나 결정적인 득점기회를 잡았으나 한골도 빼내지못하고 허덕이다가 전반 21분 東大附高 포드진에 기습을받아 왼쪽이 뚫려 먼저 골을 내주었다.

동대부고 게임 메이커인 金政根이 안양공 왼쪽을 돌파하여 반대방향으로 절묘하게 볼을 패스하자 FW 金鍾建이 골에리어정면에서 슛을 성공시켰다.

안양공으로서는 뼈아픈 순간이었다. 전반2분 李成福의 헤딩슛이 골포스트를 빗나간것을 비롯 李正圭, 李成福의 슛이 잇달아 골문을 외면했다.

고전하던 안양공은 후반6분께 「1—1」 동점을만들었다. 왼쪽 코너킥을 얻어 崔浩榮이 동대부고 문전으로 길게 볼을 띄우자 李太炯이 헤딩 패스, 받치고 있던 金亨烈이 슛을 성공시켰고 2분 뒤인 8분께 동점골을 어시스트했던 전반교체 FW 李太炯이 통렬한 중거리슛으로 결승점을 뽑아냈다.

안양공—동대부고의 준결승전은 금년 고교축구명승부전의 하나로 극적인 장면이 많아, 1만여관중들을 열광시켰다. 80분격전에서 안양공은 19개의 슛을, 동대부고는 13개를 기록했다.

◇준결승 전적
▲고등부
안양공고 2(0—1, 2—0)1 동대부고
강릉상고 2(0—1, 2—0)1 신흥실고

延世、圓光꺾고 決勝에
統一旗대학야구 8安打로 6대0

【大邱=聯】 투타에서 우세를 보인 延世大가 圓光大를 6—0으로 셧아웃시키고 제4회통일기쟁탈전국대학야구대회 결승전에 선착했다.

延世大는 8일 大邱시민운동장서 벌어진 대회 5일째 준결승전에서 李吉煥·金鎭元의 계투로 圓光大의 타봉을 산발 3안타로 막고, 장단8안타로 공략, 6—0으로 완승했다.

延世大는 1회초 1사후 2번 李順喆이 좌중간 3루타로 나간뒤 3번 朴哲永의 좌희비로 선제 1점을 뽑고 2회초 포볼을 고른 6번 張勳이 7번 지명타자 朱在昌의 우익수엽을 빠지는 3루타로 홈인, 1점을 추가했다.

延世大는 3회초 연속2안타로 1점, 5회초 1안타 1포볼 2도루, 2실책에 편승, 2점을 보태 승세를 굳혔다.

◇제5일전적
▲준결승
연세대 111 021 000—6
원광대 000 000 000—0

제롤라이티스 選手 벌금 千2百弗부과

美國의 테니스 스타 제롤라이티스는 US오픈 테니스에서 5번시드를 받아 3번인 강적 이반·렌들(체코)을 3—2로 힘겹게 물리쳐 준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케이스·존슨 그랑프리 감독관으로부터 1천2백50달러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존슨 감독관은 제롤라이티스가 경기도중 관중석에 볼을 쳐넣어 7백50달러의 벌금을, 경기후 기자회견에 응하지않아 5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로테니스대회를 지배하는 그랑프리 규약에는 임원 또는 관중에대한 불손행위에 최고 1천달러까지, 정당한 사유없는 기자회견불응에 5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國際테니스 組織委 어제 懸板式거행

오는 10월22일부터 大邱와 서울에서 열리는 해태배쟁탈 프로테니스8강초청국제대회 조직위원회 현판식이 8일서울中區 武橋洞 동민빌딩에서 거행됐다. 대한테니스협회가 82년에 창설계획인 그랑프리대회의 전초전으로 열리는 이대회에는 美國의 세계상위랭커 로스코·태너등 8명의 프로선수가 참가, 慶北실내체육관과 잠실종합체육관의 특설인조코트에서 토너먼트로 경기를 갖는다.

會長에 데스포氏 世界女子테니스協

【뉴욕AP=聯】 세계여자테니스협회는 동성애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빌리·진·킹 후임에 디안느·데스포씨를 신임회장에 뽑았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局 第8譜 146~188 (각5시간 덤5집반)

白(5段) 張 秀 英
黑(4段) 鄭 壽 鉉

鄭4단은 안간힘을 다하여 반격을 시도했지만, 張5단이 強柔를 섞어서 하는 「마무리작업」을 깰 도리가 없었다. 이리하여 최후로는 옥쇄를 기할 밖에 없어서 무리인줄 알고도 강수를 연발한 끝에 중앙黑대마를 커다랗게 죽이고 돌을 놓았다.

이 과정을 보면 白46에대한 黑47은 보통 73자리를 막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최대한으로 버텨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우변을 黑49에 끊어 59까지 9집에 상당한 끝내기를 해치웠는데 그러나 이것도 중앙73쪽에 헛점이 남아있어서 이해득실이 어떨지 아리송하다.

黑49의 시점에서 73쪽을 보강하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판국을 소생시키기 어렵다 판단하고 白의태도에따라 중앙에서 일전을 벌이자는 배짱이다.

이윽고 白60에서 62。이곳에서도 정상이라면 黑63으로 64자리를 꼬부려나와 그좌측 白3점을 잡아야한다. 그렇지만 鄭4단은 『白3점을 잡아보았자 盤面으로도 집이 부족하여 옥쇄를 기해보자』는 생각이었음이 분명하다.

張5단은 黑의 비장한결의를 선뜻 응해주듯이 白64를 선수한뒤 66이하로 파고들것은 파고들고 지킬것은 지키면서 두어가다가 마침내 80·82로 포위망을 죄어버렸다.

결국 白88로써 중앙黑이 함몰되자 鄭4단은 오히려 무거운짐이라도 벗은듯이 돌을 거두었다. 전문기사는 아마 「어디서 어떻게 던지느냐」도 무척 신경이 쓰이는일인 모양이다. 【一凡】

黑軍, 마침내 玉碎

나의 이력서 윤치영 ㊷

〈題字·尹致暎〉

8·15해방은 이땅에 政黨과 사회단체의 沙汰를 몰고왔다. 日帝가 물러난뒤 갑작스런 힘의 空白도 그 원인이 되겠지만 특히나 倭政때 금지됐던 이른바 「정치활동의 자유」가 이같은 정당의 洪水를 빚었다고 볼수있다.

아무튼 모두가 정치인·애국자로 행세했다. 만나는 인사들마다 ××黨 ××단체에 있다고 자기 소개를 하는데는 은근히 기가찰 노릇이었다. 前回에서 말한 대로 정당중에서도 左翼系 政黨의 簇出이 가장두드러졌다.

당시 呂運亨의 建準을 自派一色으로 장악했던 左翼은 共産黨의 재건을 노리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반면 右翼진영은 四分五裂되어 求心點을 갖지못하고있었다. 내가 金度演, 任永信등과 함께 大韓國民黨을 만든것을 비롯, 金炳魯 白寬洙 趙炳玉 李仁 金用茂 金若水등은 朝鮮民族黨을, 元世勳등은 高麗社會民主黨등을 각각 이끌고 있었다.

따라서 右翼진영은 左翼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大同團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수없었다. 민족진영의 최대정당으로서 左翼에 과감히 맞서 후일 우리정부의 수립에 큰몫을 했으며 전통야당의 母胎가 되었던 韓國民主黨이 탄생한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의해서였다.

韓民黨 參與

그때 古下 宋鎭禹는 國民大會準備委員會를 이끌고 建準과 투쟁을 벌이는한편 臨政환영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宋鎭禹와 金性洙등은 『우리는 臨政만 받들면 되지 따로 정당은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좌익의 극성에의해 大同團結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고 民族진영은 朝鮮民族黨, 韓國國民黨, 高麗社會民主黨과 國民大會준비위까지 합쳐 單一政黨을 결성할것을 논의했다 드디어 민족진영은 45년9월

야합하는 左翼에 대항하기위해 組織
全民族진영 포용 美軍政에 깊이 관여

4일 위 4개단체 대표 82명이 중심이되어 安國洞8번지 尹潽善자택에서 발기대회를 열고 韓民黨창당을 선언했다.

나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 민족진영의 힘을 규합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는데 日帝치하에서 대부분 同苦를했던 정신적동지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뜻을 모을수가 있었다.

같은해 9월16일 서울 慶雲洞의 天道敎강당에서 열린 韓民黨창당대회에는 끝내 宋鎭禹 金性洙가 불참했는데 이는 古下의 「政黨尙早論」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창당대회에 참여치 않은 宋鎭禹는 元世勳 白寬洙 徐相日 金度演 許政 白南薰등 6명의 총무를 거느리는 수석총무(사실상의 黨首)로 추대됐으며 약 1개월뒤 宋鎭禹도 수석총무직을 수락했다. 古下가 政黨尙早論을 거둔것은 차츰 정치의 版勢가 뚜렷해지는데다 힘이있는 정당의필요성을 느꼈기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창당대회에는 2천6백여명의 당원이 모였는데 모두들 애국자고 유지였다. 대회는 白南薰의 개회사에이어 金炳魯를 의장에 추천하고 元世勳의 臨政要人과 맥아더 원수에대한 感謝決議안, 李仁의 분단된 남북의 통일적행정실현과 조선인 관리채용에대한 긴급건의안을 채택했다. 金度演의 경과보고, 趙炳玉의 국내외정세보고에이어 張德秀의 선창으로 당원선서도있었다.

◇8·15는 우리에게 光復의 기쁨을 안겨주었으나 列强들은 이미 얄타密約에 의해 南北을 分割했다. 사진은 48년 9월8일 仁川에 상륙, 進駐한 하지中將 휘하의 美24軍團.

李承晩, 徐載弼, 金九, 李始榮, 文昌範, 權東鎭, 吳世昌등 7명을 領袖로 추대했다.

韓民黨 창당이 이렇게 수월했던것은 창당主役의 대부분이 日帝시대독립운동을 陰陽으로 지원했던 사람들이기때문인데 만약 美國과 滿洲, 시베리아등지에 나가있던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면 難航을 거듭했으리라고생각한다. 특히 建準에 참여했다가 그들의 속셈을알고 탈퇴한 李仁甲등이 韓民黨창당에 열성적이었다는것을 분명히 해두고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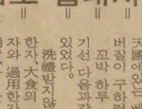
韓民黨은 당시 국내의 민족진영을 거의 망라했었다. 앞서말한 總務團을 제외하고 사무국장 羅容均, 당무부장 李仁, 조직부장 金若水, 외무부장 張德秀, 선전부장 咸尙勳, 노동부장 洪性夏, 문교부장 金用茂, 중앙감찰위원장 金炳魯등이 면모였으며 나는 尹潽善, 具滋玉등과함께 외무부에 속해있었다.

韓民黨의 입장은 「臨政을 지지하고 建準을 타도하여 建國에 매진하자」는 선언문(要旨)에서도 볼수있듯이 민족적 색채가 강했으며 綱領과 정책도 유사했지만 너무 保守的이라는 世評도 있었다. 韓民黨은 臨政요인의 귀국을 기다리는 한편 美軍政에 적극 참여 했는데 아놀드 軍政장관이 임명한 11명의 군정장관고문중 9명이 韓民黨이거나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주요에 있는 金性洙, 宋鎭禹, 金用茂, 金東元, 尹基淳, 吳泳秀, 李容卨, 姜炳順등이 바로 그들이다.

한편 李박사의 還國을 계기로 나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보다 李박사의 측근으로 일하기시작, 韓民黨의 일에 직접 손을 대지않는 입장을 취하게 됐다.

文豪의 名言

단테 <1265~1321>



이탈리아 最大의 詩人. 피렌체 貴族家門서나, 볼로냐대서 배움. 政界에나가 최고 執政官의 한사람이됐으나 정치상의 분쟁으로 永久追放됨. 그후 英佛을 流浪하다 결국 이탈리아 라벤나서 죽다.

自由를 구해 그는 나아간다. 그 自由를 위해선 목숨도 겁내지않는者만이 아는 貴重한 自由를. <「神曲」煉獄編 一歌>에서.

× × ×

호머 세익스피어 괴테와 함께 世界四大詩聖의 한사람 단테(Dante Alighieri)를 말할때 빼놓을수 없는것이 「神曲」과 久遠의 女性 베아트리체이다. 1292년쯤에 쓰인 詩集 「新生」엔 이여인이 생생히 아름답고 우아하게 그려졌다. 단테가 후에 추가한 自註詞書에 의하면 그는 이미 9세때 그여인에 반했고, 18년후 다시 만나 戀心에 불탔다한다. 그러나 베아트리체는 시모네·드·발디와 결혼, 1290년 25세의 꽃다운 나이로 죽어버린다.

自由를 위해선 죽음도 겁내지 않는다

단테가 평생을 두고 쉼없이 創作을 서두른것이 「神曲」이다. 永久追放을당해 남의나라를 放浪할때도 그는 이필생의 大作을 다듬어 끝내는 西洋文學의 頂上에 올려놓았다. 神曲은 地獄편 34歌, 煉獄편 33歌, 天國편 33歌 모두 100歌로 참으로 均整된 莊大한 詩作品이다. 내용은 그가 35세때 復活祭에 地獄·煉獄·天國을 일주일동안 돌아본다는 형식으로 돼있다.

罪를 뜻하는 숲속에서 단테가 방황하고있을때 詩人 버질이 나타나, 그를 地獄과煉獄으로 案內, 救해줄 것을 약속한데(地獄편一歌)선 天國에있는 베아트리체의 간청으로 버질이 구하러온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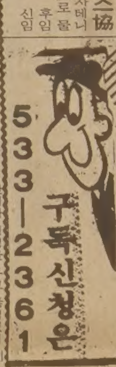
꼬박 하루 地獄을 돌아본데 여기선 다음과같은 사람들이 벌받고 있었다.

洗禮받지않은자, 肉慾의 罪를 犯한자, 大食의 罪, 돈을 너무 많이 번자와 過用한자, 지나치게 怒한자, 異端者, 폭력을 쓴자, 아부추종, 聖職賣買, 마술마법, 汚職收賄, 위선, 절도, 권모술수, 分裂分派, 허위위조, 肉親을 배반한자, 조국을 버린자, 主人을 배반한자등이었고 煉獄에선 다음사람들이 罪를 씻고있었다. 生前悔悛이 더디었던자, 거만의 죄, 질투, 노염, 怠惰, 食慾, 大食, 色慾등의 罪등.

神曲은 총14, 233行. 質量공히 추종불허의 대작이다.

한편 「神曲」의 詩에 대응하는 美術의 세계는 르네상스繪畵였다.

단테에 깊이 傾倒된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禮拜堂에 「最後의 審判」(1541)을 그렸는데 「神曲」의 造型美術의 한 하나의 표현형태라 볼수있고 이는 「地獄의門」을 제작한 로댕에 이르기까지 많은 畵家들에 의해 시도됐다.



流星의 賊 <17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山空花自紅 ㉘

정담(情談)을 하기엔 여름밤은 너무나 짧다. 동창이 부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숙랑은 홍계남이 자리에 들기를 권하고 스스로는 다른 방으로 퇴출했다.

계남이 잠을 깬것은 진시(辰時)를 훨씬 넘어서였다.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것은 꿈이 아니고 엄연한 현실이었다. 계남이 기동하는 소리를 들었던 모양으로 창 밖에서 하녀의 소리가 있었다.

『세수물을 대령했소이다』

계남이 일어서서 장지문을 열었다. 늦은 여름의 햇빛이 꽃이 만발한 뜨락에 가득차 있었다. 어림 짐작으로 측간을 찾아 생리(生理)를 다하곤 툇마루 한구석의 축대 위에 놓인 세숫대 앞으로 갔다. 먼저 백소염(白鹽)으로 양치를 하고 손과 얼굴을 씻었다.

방으로 돌아오니 아침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혼자 식사를 했다. 밥상을 물리고 나자 하녀가 일습의 새옷을 방안에 들여 놓으며 말이 있었다.

『아가씨의 분부오이다. 옷을 갈아 입으소서』

그때사 계남이 자기의 행색이 너무 초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되는 더위 속을 거의 열흘동안이나 같은 옷을 입고 지냈으니 그 몰골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 아니었던가.

계남은 미리 방안에 준비되어 있는 대야물과 수건으로 전신을 훔치고 새옷으로 갈아입었다. 누르스름한 갈포의 고의 저고리에 가는 세 무명베의 홋버선, 갑사대님, 두루마기는 눈이 부실듯 하얀 모시로 되어 있었다. 여태껏 우락부락한 종자가 명문의 귀공자(貴公子)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계남은 자기의 처지엔 어울리지 않다고 느꼈으나, 벗어 놓은 헌 옷을 다시 주워 입을 생각은 없었다.

『사람으로 나가시지요』

한 하녀의 말에 이끌려 숙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사람으로 나갔다. 사람으로 나가 하녀에게 하직인사를 전할까 하고 있는데 마당이를 열고 숙랑이 들어왔다. 말 없이 서로 보는 눈과 눈에 아침의 인사가 오갔다.

숙랑이 좌정하자 바깥으로부터 하녀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숙랑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어제 아가씨의 오라버니 되시는 나으리로부터 도련님에 관한 얘기는 죄다 들었소이다. 한데 서울에 선 정해 놓은 거처가 없다고 하옵니다. 앞으로는 이집을 도련님의 거처로 하시란 아가씨의 뜻이옵니다. 하오나 당분간은 도련님의 친구들에겐 비밀로 해두시는 것이 좋을까 하옵니다. 언젠가 아가씨와 정을 맺으신 그날, 잔치와 더불어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아가씨의 마음이로소이다. 도련님께서 이집에 드나드실 땐 동문(東門)을 쓰시는게 좋을까 합니다. 어느때이건 그 문을 다섯번 두드리면 문이 열릴것이옵니다. 아가씨의 뜻으론 오늘부터 이 사람에 도련님께서 거처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옵니다. 그러나 도련님의 뜻대로하옵소서』

『고마운 일이오. 아가씨의 분부대로 하겠읍니다만 나는 수일내로 안성의 고향엘 다녀와야 하겠소.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소』

하고 홍계남이 일어서서 바깥으로 나왔다. 귀공자 홍계남이 어느덧 대로를 걷고 있었다.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9시~9시(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주간女性

블론디 딘·영作
本本特約·連載漫畵

"라이저, 이번 금요일 밤에 나하고 외출할래?"
"그러면, 다음 금요일날은 어때? 좋아, 그럼 그다음 주 금요일로 할까?"
"잘안되니, 응?"
"아직 전화도 안했어요.·그냥 연습만 한거예요"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고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 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Burnhamthorpe Hwy 10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Bloor St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3589 King St B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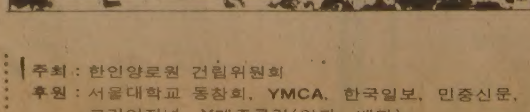
현 대 한 국 작 가 초 대 전
(양로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전시회)

이 양 원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신인 예술상 수석상 수상
—국전 특선5회
—국전 문공부 장관상
—국전 입선8회
—각종 초대전 출품및 개인전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일연회 회원

유 종 민
—서울미대 조각과 졸업
—서울대 교육대학원 졸업
—각종 초대전 출품
—국전6회 입선
—제3회 개인전 가짐
—각종 미전 심사위원
—현 관동대학 미술교육과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INSEA한국회원

조 용 각
—서울 미대회화과 졸업(서양화)
—신인 예술 장려상 수상
—각종 국제대회 초대전 출품전및 개인전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추계예술 조교수
제3구룹회원

권 승 연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1회특선)
—창작미협전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제3구룹전
—한국현대 도자기 삼인전



한 풍 렬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서울미대 대학원 졸업
—대학교 강사
—관인 모뉴망 미술학원장
—경기도전 수석상 수상
—국전특선1회 입선6회
—각종 미전출품및 개인전2회
—중앙미술 대상전 장려상 수상
—현 한국미협회원, 일연회 회원

장 연 탁
—서울미대, 온타리오 미대졸업
—국전출품
—낙우회 회원전 출품
—이태리 마리노(로마)국제 비엔나레 출품
—이태리 카라라 국제조각 심포지움 참가
—이태리와 카나다에서 4번 개인전
—현 캐나다 조각협회 회원
● 장씨 작품이 영구소장된 화랑
이태리 미라노 현대미술관
베니스 누오브 스파지오 화랑
토론토 가보 화랑
캐나다 조각협회

나 영 삼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
—한국대상전 출품
—제1회 한·일 작품 교류전 출품
—미술회관 초대전 출품
—창작미술 협회전 출품
—한국미협전

장 소 :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북설화랑)
시 간 : 10월 8일(목) 9일(금) : 오후6시~9시30분
〃 10일(토) 11일(일) : 〃 2시~ 〃
〃 12일(월) 13일(화) : 〃 6시~ 〃

주최 : 한인양로원 건립위원회
후원 : 서울대학교 동창회, YMCA, 한국일보, 민중신문, 코리언저널, Y멘즈클럽(알파, 베타)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서울大 신입생 小系列·學科別 모집

82학년要綱 內申、同一系30.2、他系32% 반영

同一系서만 2志望 허용

未達땐 2次銓衡…追加모집은 않기로

서울대는 7일 82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을 통해 ▲지금까지의 중계열모집에서 소계열 또는 학과별 모집으로 모집단위를 세분화하고 ▲내신성적은 동일계열지망자에 30·2%, 타계열지망자에 32%를 각각 반영하는한편 ▲복수지망은 동일계내에서만 제2지망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는 또 1차전형에 의해 모집인원이미달되면 2차전형으로 선발하되 추가모집은 하지않기로했다.

募集정원 올水準과 같은 6천5백30명

家政大 학과별로、藝能은 複數지망不許

모집인원및 졸업정원은 금년과같은 수준으로 각각 6천5백30명과 5천20명이다.

모집단위를 보면 인문대학은 인문Ⅰ(어문학)인문Ⅱ(역사학)인문Ⅲ(철학)으로、사회과학대학은 사회Ⅰ(정치·외교학)사회Ⅱ(경제·무역학)사회Ⅲ계열(사회·인류·신문학)로 각각 나누고 세칭 영세학과인 심리·지리·사회복지학과등은 학과별로 모집한다.

자연과학대학도 4개 계열로 묶어 모집하고 화학과、의예과、치의예과는 학과별로 모집한다.

사범대학은 금년의 2개계열모집에서 3개계열로 늘리고 체육교육과·국민윤리교육과는 종전과같이 학과별로 모집한다.

농과대학은 1계열 3과모집에서 농학계열의 잠사학과를 따로 분리、1계열 4과모집으로 늘렸다.

가정계열과 가정관리학과로 모집하던 가정대학도 가정계열을 식품영양학과、의류학과로 분리、학과별로 모집한다.

이밖에 경영대、법대、공대、약대、수의대、미대、음대、의대 간호학과등은 금년과같이 계열또는 과별로 모집한다.

학력고사와 고교내신성적 반영비율은 동일계지망자(학력고사에서 인문계를 지망하고 대학지망에서도 인문계를 지망할경우)는 학력고사 69.8%(3백70점) 고교 내신성적 30·2%(1백60점)로 5백30점 만점, 타계열 지망자는 학력고사68%(3백40점) 고교내신성적 32%(1백60점)로 5백점만점으로 했다.

또 예·체능계는 미대 내신성적30%(3백40점)학력고사30%(3백40점)실기고사 40%(4백50점)로 1천1백30점만점이며、음대는 내신성적30%(5백10점)학력고사20%(3백40점) 실기고사50%(8백50점)로 1천7백점만점、사대체육교육과는 내신성적 30·4%(2백80점)학력고사37%(3백40점)실기고사 32·6%(3백점)로 9백20점만점으로했다.

또 제2지망까지 허용되는 복수지망은 크게 인문사회계열(문과계열)과 이공계열(이과계열)로 나누어 각기 그안에서만 허용되고 예능계는 불허되는 한편 사대 체육교육과는 어느쪽에도 복수지망이 허용된다.

서울大 당국자는「학문의 유사성을 고려、소계열로 묶었으며 어디에도 포함시키기 곤란한 학과는 학과별로 모집하기로했다」고밝히고「수험생의 지원상황(인원)은 사전공개할 것이나 학력및 내신성적의 분포는 발표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해설

募集단위 28개서42개로細分

7일 발표된 요강은 몇가지 다른특징을 발견할수 있다. 서울大는 우선 모집단위를 세분、올해 28개에서 42개로 14개의 모집단위를 새로이분리、독립시켰고 그결과 종래의 중계열모집이 소계열과 학과별모집의 절충식이 돼버렸다.

서울大가 이같이「엉거주춤」한 모집단위형태를 취하게된것은 학과별모집을 주장하는 대학측과 계열별모집원칙을 가능한한 지키라는 문교부의 입장이 절충됐기때문이다.

서울大의 모집단위가 이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위 인기학과에 몰리는 인원이 훨씬늘어날것이며 일부학과는 심한경쟁이 예상된다.한편고교에서도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과연 어디를 선택해야하는가 하는데는 더큰 어려움을 겪을것이기때문이다.

둘째 2차전형제를두어 금년과 같은 미달사태는 없을것으로 전망된다.

또 동일계 30점 가산제는 올해까지만해도 학력고사에서 자연계를 선택하고 자연계 학과를 지망했을때만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인문계지망의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수험생의 올바른 진로교육을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한가지 문제는 제2지망까지 선택할경우 지망과 그지망수험생간에 어떤 차별을두느냐는 것이다.

이점에 관해 서울大측은 분명한 대답을 않고 있으나 수험생들의 학과선택에는 관심거리가 아닐수 없다. 【金宗來기자】

蘇機動訓鍊 10萬병력 투입

폴란드隣接 발트海서

自由勞組대회에 壓力

【모스크바6日外電=綜合】소련이 제1차 폴란드자유노조 전국대회개막에 때맞춰 지난 4일부터 4일간 폴란드국경부근의 발트해역에서 실시중인 기동훈련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전후 최대규모인 약60척의 소련함정과 10만병력이 참가하고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소련의 관영타스통신은 웨스트81로 알려진 이 기동훈련에『현재 약10만명의 소련군이 드미트리·우스티노프소련국방상의 지휘하에 참가하여 빈틈없는 훌륭한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처음으로 기동훈련의 참가병력규모를 밝혔다.

또한 발트해에접해있는스웨덴국방성은 이 기동훈련에 1척의 항공모함과 8척의 대형상륙함을 포함하여 약60척의 소련함정들이 참가하여 리투아니아해안에 집결해있으며 이같은 함대규모는 2차대전이래 발트해에 집결한 최대규모의해군군사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초 소련의 이번기동훈련참가병력이 약 2만5천명정도로 예상했던 서방외교관들은 타스통신의 10만병력보도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이같은 대규모기동훈련이 5일 폴란드의 발트해안 항도그다니스크에서 개막된 제1차 자유노조전국대회에 커다란 압력을 가할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소련이 그들의 기동훈련에 참가한 병력규모를 정확히 발표하기는 이례적인데 타스통신보도에 이어 모스크바TV방송은 기동훈련상황을 뉴스시간을 통해 보도했다.

2次大戰後 最大

댐建設、洪水조절力點

全대통령、全南水害복구現場 시찰

全斗煥대통령은 일요일인 6일상하오에 걸쳐 全南의 木浦、海南、靈岩일대의 水害복구작업현황을 약 4시간동안 시찰하고 복구작업중인 주민、학생들을 격려했다. <사진>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木浦市山亭1洞사무소에 들러 范澤均木浦시장으로부터 水害및 복구현황을 보고받고『가능한 모든人力을 동원해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모든 罹災民이 추석안에 집으로 돌아가 추석을 잘지낼수 있도록하고 完破가옥에 대해서는 겨울이 오기전에 입주할수 있도록 복구공사를 끝내는 한편 철저한 소독및 예방접종실시로 防疫에 만전을 기하도록할것등을 아울러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이날 낮 海南郡縣山面 縣山중학교에서 수행장관및 복구작업을지원나온부대장등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앞으로 댐을 만들 경우에는 예산이좀 들더라도 홍수조절용 다목적 댐을 건설하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에 앞서 木浦市山亭1洞의 浸水지역현장에 들러 복구작업중인 주민들과 이지역에서 防疫지원중인 해군의무부대장병들을 격려한데이어 海南郡縣山面九山里에서 堤防복구및벼세우기 작업을벌이고있던 육군특전사부대장병들을격려했다.

全대통령은 또 水害복구작업을 돕기위해 全南지방에내려온 서울大학생 3백여명가운데 愼鏞厦교수의 지도아래 1백54명이 靈岩郡 西湖面聖才里에서 벼세우기작업을 하고있는 현장을찾아 이들을격려하고『어려울때 일수록 전국민이 한데뭉쳐 어려움을 나누어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찰에는 徐廷和내무、高建농수산、金周南건설、崔侊洙체신、盧泰愚정무제2장관및 청와대 관계수석비서관등이 수행했다.

學生이 暴力으로 政府에 맞서면 強力한 制裁받아

李文教、大學新聞에 答辯

李奎浩문교부장관은 7일『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이들이 현실사회가 안고있는 부조리에대해 저항을 느끼는것은 당연한 일이나 학생들이 정부의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계층이라고 믿고 폭력으로 힘의 논리에 맞설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될것』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날 서울大학신문이 낸「한원문제를 보는 시각」에대한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공급이 수요를 따르지못하는 현실사회에서는 힘의지배가 정당화될수밖에 없으며 선동과 음모가 판을 치고 집단적인 폭행이 질서를 짓밟아버릴수있는 상황아래서의 힘의지배는 정의의 실천을위해서도 정당화될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이어『지난학기 서울大에서 일어나지않도록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않도록 이미 필요한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유감스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학생들 편에서의 변화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過去불구 對韓經協"

日公明黨委長 韓半島긴장 客觀的 사실

日安保、自國의 守護는 당연

【東京7日=宋孝彬특파원】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公明黨의 다께이리(竹入)위원장은 7일 동당 중앙위원회에서『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객관적으로 사실이며 긴장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야당의 입장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한국에 제5공화국이 출범한 현재 언제까지나 과거에 구애되지않고 협력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다께이리 위원장은 안보문제에관해『자국의 영토와 영공、영해를 지키는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자위대의 인정과 미·일 안보조약의 당간존속을 당의기본방침을12월전당대회에서 밝힐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방위정책에관해 자위대의 불인정으로부터 인정으로 정책을 전환한 이유로 ①中近東지역의 격동하는 정세변화와 ②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에따른 일본의 안전보장위협에 있다고 지적했다.

8個 프로젝트提示 한국、日에

【東京5日=宋孝彬특파원】한국은 지난달 열린 한일외상회담에서 일본에대해 60억달러의 차관공여를 요청하면서 교육·의료·상하수도·댐건설등 8개항목에 걸친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한국측요구가 ①大邱—光州간 東西고속도로건설 ②교육시설 확충 ③忠州·陝川댐건설 ④廣域상수도·하수도·종말처리장정비등 대부분 민생 안정을 위한 사회개발기반정비와 관련돼있어 對韓경제협력의 초점인 명분론을 떠나 구체적인 금액조정으로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께이(産經)신문은 한국측의 자금계획에 軍事色이 희박하기때문에 오는10일의 정기각료회담이 난항을겪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현재 양국실무레벨에서 규모조정작업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것 같다고 보도했다.

民間베이스 經協 研究委 月末개최

【東京7日=聯】한일양국간의 민간베이스 경제협력방안을 검토하기위한 제1회 장기구상연구위원회가 이달말이나 10월초 東京에서 개최된다.

산께이신문은 7일 장기구상연구위의 일본측 위원장에는 아끼다(秋田定三)일본장기신용은행부행장이 취임했으며 이번 1차회의에서는 한국측이 요구하는 앞으로5년간의 40억달러상업차관제공문제가 주로 협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기구상연구위는 지난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3회 양국민간합동경제위원회가설치하기로 합의、그동안 인선작업이 진행돼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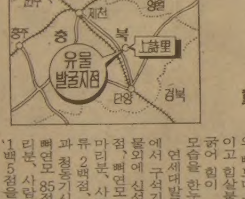
6~10萬年前 사람뼈 發見

丹陽 上詩川邊서

네안데르탈人種 비슷

延大발굴팀、유럽·中東·자바分布說 재검토해야

◇上詩구석기인㊧과 현대인의 주걱뼈. 구석기인의 뼈는 현대인의 뼈에 비해 솟기가 두껍고 밑부분이 불룩하다.



앞팔 짧고 힘센 모습

動物化石45頭分도

인류조상의하나인 네안데르탈(Neanderthal)인종에 가까운 사람의 뼈가 충북丹陽郡梅浦面 上詩里 上詩川변 바위그늘(RockShelter)에서 발견돼 선사고고학계의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 이일대를 발굴조사한 연세대박물관발굴팀(단장 孫寶基교수)은 7일 上詩川변 3개의 바위그늘에서 중기구석기인의 앞뒤팔뼈、주걱뼈(어깨죽지) 턱뼈등 3인분의 사람뼈와 뼈연모 8백50점、호랑이·사슴등 동물화석 45마리분등의 구석기시대유물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발굴단장인 孫교수는『이번에 발굴된 사람의 뼈는 해부학상의 특징으로 보아 6만년~10만년전에 살던 구석기인의 뼈같다』고 밝히고 유럽·중동·자바까지만 네안데르탈인이 분포했다는 종래의 학설을 재검토할 중요자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구석기말의 뼈가 발굴된것은 70년대중반 堤川 전말동굴에서 앞팔뼈 한조각과 70년대말 북한平南德川에서 위아래 어금니뼈가 나온후 3번째이나 이처럼 많은뼈가 나오기는 이번이처음이다.

뼈등이 발견된곳은 上詩川을 굽어보는 절벽언덕에있는 3개의 바위그늘.바위그늘은 넓이 2~3m、길이 3~5m의크기로 조그마한 동굴같은데 3개가 8~20m간격으로 떨어져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주걱뼈(12×15㎝)는 네안데르탈인의 전형과 거의같다. 현대인의 주걱뼈는 솟기부분이 얇고 좁으며 둥근힘살(소원근)이 안쪽에 붙어있는데비해 이번에나온 주걱뼈는 네안데르탈인처럼 솟기가 두껍고 밑부분이 불룩하게 둥근힘살이 밖에 붙어있다.

앞팔뼈(23㎝)도 현대인의 뼈보다 길이는 짧으나 휘이고 힘살붙은 마디가거칠고 굵어 힘이 셌던 구석기인의 모습을 한눈에 살필 수있다.

연세대발굴팀은 이번발굴에서 구석기시대의 사람뼈유물외에 신석기시대의 석기82점、뼈연모 56점、동물화석45마리분、사람뼈 3인분、조개류 2백점、빗살토기등 50점과 청동기시대의 석기 45점、뼈연모 85점、동물화석 20마리분、사람뼈 2인분、조개류 1백5점을 발굴했다.

社會漫評

돗자리 面目……

文化協定 체결 美·中共

【北京5日AP=聯】미국과중공은 5일 오는82년부터83년까지 2년간 예술·교육·언론등 제반분야 상호교류를위한 문화협정을체결했다고北京주재 미대사관이 발표했다.

미대사관은 지난79년 양국수교이래 두번째로 체결된 이협정이 찰즈·위크 미국제교류처(ICA)회장및 중공대외문화상 황진사이에 조인됐다고 밝혔다.

地平線

사람이랄 수도、짐승이랄 수도 없는 짐승들이 홀연히 나타나 나무막대나 돌멩이를 들어 부딪다가「연장」이라는 걸 쓸줄 알게된다. 원시인이 공중에 팽개친「연장」은 순식간에 몇만년이라는시간을 뛰어넘어 우주공간을 날고 있다. 바로 우주선이다. 70년대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미국영화「서기2001년—우주오디시」는 이렇게 시작된다.▼우주 스테이션에서 우주선을 탄 사람들은 반짝이는 별들만이 보이는 망망공간을 컴퓨터의 지시대로 날아간다. 목적지는 목성이다. 2차대전중 영국공군 레이다장교였던 이영화의 원작자가 지금 그 속편「서기2010년」을 쓰고 있다 한다. 올해 68세인 과학소설작가 클라크는 출판사로부터 1백만달러、그러니까 7억원을 선금으로 받았다는 얘기다.▼과학소설이라면「과학 픽션」의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SF를 말하는 것이지만 인기SF작가가 7억원을 번다는것은 우리에겐 놀라운 얘기라고 할수있다.「서기2001년」의 작가 클라크의경우 세계각지를 돌아본끝에 스리랑카에 호화로운 집을짓고 임금님부럽잖은 생활을 하고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 과학자들도 모두 그를 부러워하고있다한다.▼과학으로 재미를보는것은 SF작가만이 아니다. 최근 3년동안 미국에는 과학잡지들이 베스트셀러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있다. 시작은「펜트하우스」란 섹스잡지로 유명한 봅·거시언이라는 사람이 78년「옴니」라는 통속과학잡지로 바람을 일으키면서부터였다. 지금1백만부나 팔리는 이잡지는 텔리비전영화까지 만들 작정이라고한다.▼「옴니」가 재미를 보면서「과학81년」「과학 다이제스트」「발견」등이 쏟아져나와 과학잡지가 모두 6백만부쯤 팔리고있다. 독자들은 약 4분의3이 고등교육을 받은 30대 남자들이라고한다. 이들은 우주과학에서 진화론、천문학、심리학、건강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있다. 과학잡지들은 다각각 특색이 있지만 우주계획에 대해서만은 모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있다.▼인기SF작가는 커녕、남이 만들어 놓은 영화「서기2010년」도 구경하지 못하는게 우리의 실정이다. 과학기술의 시대에 뒤쳐져야되는 한심한 실정이 아닐수없다.「지구과학의 학습자료」로 과학전에서 대통령상을 탄 鄭永云·金圭甸씨가 더욱 돋보이는것도 그때문이다.과학소설로 7억원을 버는 사람에게 멀건 못되지만 과학의대중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9
은 : 온스당 US 8.9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Daily Newspaper ·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재 토론토 고교대항
골프대회

시 일 : 1981년9월26일(12시30분)
장 소 : ROLLING HILLS GOLF CLUB
참가비 : 단체팀당 30달러
개 인 30달러
상 품 : 단체상 : 1, 2, 3등
개인상 : GROSS 1, 2, 3등
NET 1, 2, 3등
LONGEST
NEAREST
M.H.G.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윤호영 964-3644
조병선 493-1602

주관 : 경기고등학교

주식회사
이훈모부동산
정직
성실
221-2084, 225-1204
(4975 YONGE ST.
AT SHEPPARD ST.)
HUN MO LEE
REAL ESTATE LTD.

교포를위한 제4주년
기념 특별세일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MODERN FURNITURE
ecosys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NORTH YORK
GM
CHEVROLET
OLDSMOBILE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병권 올림

김병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朴鍾學 史上첫 金메달

世界柔道 라이트級서 佛 디오 눌러

◇늠름한 覇者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서 우승한 朴鍾學이 金메달을 목에걸고 기뻐하고있다.【마스트리히트5日AP電送=聯合】

黃正五는 銅메달획득 한국、金1銅2로 종합4位

【마스트리히트(네덜란드) 6日UPI=聯合】한국의 朴鍾學(24·首警司)은 5일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벌어진 제12회세계유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결승에서 프랑스의 세르즈·디오를 5분16초만에 위누르기 한판으로 눌러 韓國선수로는 세계유도선수권대회사상 최초로 감격의 金메달을 따냈다.

한국은 6일 폐막된 이번 대회에서 金1·銅2개로 종합4위를 차지했다.

박종학은 이날 근년 세계軍人 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디오를맞아 고전했으나 경기 종료 2분30초를 남겨놓고역습을 시도, 한판승을 거두었다.

박종학은 이날 1회전에서 올림픽 銀메달리스트인 蒙古의 세덴·담딘을 55초만에한판으로 제압한후 2회전에서 이탈리아의 니콜라·페토, 3회전에서 헝가리의 산도르·나지솔리모시, 4회전에서 유고의 보요·부제비치등에 파죽지세의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금년 軍人선수권 대회에서 디오에 패해 동메달에 머물렀던 朴은 경기후『기술로이겼다』고 말했다.

2위를 차지한 디오는 역습의 계기가된 마지막공격을 하지말았어야 했었다고 후회했다.

이밖에 하프 라이트급의 黃正五(유도교)는 준결승전에서 日本의 가시와자끼에 한판으로 패해 패자부활전으로 밀려났으나 프랑스의 티에리·레이에 한판승을 거둬 銅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日本은 최종일경기에서 무제한급의 야마시다와 엑스트러 라이트급의 오리와끼가 각각 金메달을 따내 金메달 4개로 종합우승을차지했으며 같은급에 출전한 河亨柱와 尹益善은 각각 1회전에서 패해 탈락했다.

◇최종메달집계

	金	銀	銅
①日本	4	2	0
②蘇聯	1	1	2
③프랑스	1	1	1
④韓國	1	0	2
⑤벨기에	0	1	1
⑤체코	0	1	1
⑥루마니아	0	1	0
⑧폴란드	0	1	0

해설 主武器는 받다리 후리기 6월 軍人대회패배 雪辱

제12회 세계유도선수권 대회서 사상처음 金메달을 획득한朴鍾學(24)은 기술이 다양한데다 양발 받다리후리기가주무기. 말없는 노력형에다투지가 강하다.

결승서 대결한 프랑스의 세르즈·디오는 금년 6월 美國 국제군인유도대회서 준결승서 겨뤘던 선수. 이때 朴鍾學은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으로 판정패, 패자전으로 밀려나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결승서 朴鍾學은 디오의 장단점을잘알아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소망을 이루었다.

淸州淸石高를 졸업할때도 무명선수였던 朴은 고향선배이자 유도학교학장이며 首警司 코치인 李相燁씨의 눈에 띄여 유도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1학년때 首警司에 입대한 朴은 李相燁씨의 집중적인 지도를 받고 급성장, 꾸준한 노력으로 세계정상에올라섰다.『朴은 노력형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국제대회서도 대담한 경기를한다』고 李코치는 말하고 있다.

朴鍾學은 지난 8월에 제대했으며 귀국하면 유도학교로 돌아간다. 1m70, 73kg.

朴文圭씨(농업)의 장남으로 가족은 淸州에 살고 있다.

◇역대 전적

▲제3회(62년)	프랑스	金義泰	銅
▲제4회(65년)	브라질	金義泰	〃
▲제5회(67년)	미 국	朴吉淳	銀
		金炳植	銅
		朴淸三	〃
▲제6회(69년)	멕시코	金相喆	銅
		金七福	〃
		吳勝立	〃
▲제7회(71년)	西 獨	崔鍾三	〃
▲제11회(79년)	프랑스	郭佑鍾	銀
		朴永喆	銅

※不參, 노메달, 流産대회除外

吳永世 9連勝 고바야시에 判定勝

프로복싱 OPBF(동양태평양권투연맹) 주니어라이트급챔피언 吳永世는 6일저녁 文化체육관에서 OPBF페더급챔피언인 日本의 로열·고바야시를 12회판정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吳永世는 프로데뷔이후 9연승(5KO)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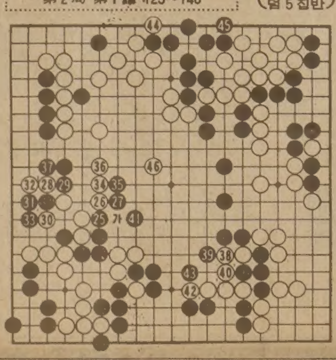
유럽·東獨종합우승 월드컵 陸上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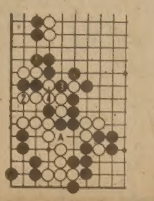
【로마6日AFP=聯合】육상의국가및 대륙대항전인 금년도월드컵육상대회가 6일로마에서 폐막돼 남녀부문에서 유럽과 東獨이 각각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局 第7譜 125~146 (각5시간)

白(5段) 張秀英
黑(4段) 鄭壽鉉





白 幸運을 타고 好調

黑白간 38의곳을 놓아둔채 좌하쪽에서 발발한 일대공반전은 승부를 결단지울요량으로 무섭게 계속될 판이다.

그러나 白「가」의 잡몸이 있는까닭에 黑25에 밀어 白26과 교환하게되었는데 이다음 문제거리가 발생했다. 좌변을 白28로젖혀 黑31까지 되었을때 白32로늘어 黑33으로 꼬부린 수를 黑은 심한 더위에 시달리는때문인지 黑은 소위 기호지세로 밀리지 않는때문인지 알수없지만 이 중요한 마당에서 거의 노타임으로 두어가는 바람에 피차간 실수가 나온것은 사실이다.

白32와 黑33은 모두 34의곳이 급소였던것이다. 만약 黑33으로 34의곳을 놓아두었으면 어찌되었을까.

참고도처럼 黑1이하 5가 그것이다. 이대로되면 실전보의 黑41도 黑「A」가 선수인 관계로 필요치 않고 더군다나 중앙의 양상이 정반대로 黑에 유리하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張5단은 黑33때 비로소 참고도의 수단을 발견하고 잽싸게 白34로 받으면서 하시를 놓았다. 솔직하게 말하면 행운의 순간이었다. 결국 黑은37로 좌변은 키웠지만 마침내 白38로 말한다. 5단은 이것으로 승리를 확신했다고 말한다.

白42에대해 黑43은 젖맞이 고약하다. 白은 이곳을 노리면서 46에 뛰어 일로 호조.【一凡】

WBC總會 開幕

新羅호텔서 48개국 參席 分委별로 主要의제 토의

세계권투인들이 친선을 다지는 제17차 WBC(세계권투평의회) 총회가 7일 상오10시 서울신라호텔서 48개국 1백20여 대표들이 참석한가운데 개막됐다.

9일 폐막되는 이번총회서는 국제라이센스를 선수에발급하는 문제를 비롯, 프로복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날 하오부터 각분과위원회별로 토의에 들어갔다.

한편 문교부장관과 서울시장, 元振, 極東, 國際프로모션은 각국대표들에게 오찬과 환영만찬등을 베푼다.

◇개회식

나의 이력서 〈題字 尹致暎〉 윤치영 ㊶

李博士의 還國

33년만에 美軍機타고 故國땅 밟아 조선호텔로 찾아가 부둥켜안고울어

日帝가 물러가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利害得失을 따지며 바쁘게 움직였고 언제부터 그리 애국지사들이 많았는지 모두가 열렬한 애국지사요 抗日투사를 자처했다.

뜨거운建國과 정치熱氣속에서 建準과 共産黨등 左翼系의 극성은 날로 극심했다.

민족진영에서는 이에맞서 임시정부還國환영준비대회에 이어 韓國民主黨을 결성하여 민족세력의 대동단결을 외쳤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李承晩박사와 金九선생의 還國을 손꼽아 기다렸다. 45년8월22일과 9월8일 蘇軍과 美軍이 元山과 仁川에 각각 上陸, 進駐했다.

9월 어느날, 하지장군의 副官이 집에찾아와서『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와서 당신을 보자고 하니 가자』고 했다. 난 李박사가 왔구나 생각하고 그를 따라 조선호텔로 갔다.

굿펠로3世였다. 그는 나에게『당신을 찾았다』며 무척 반가와했다.

프린스턴대학 대학원에다닐때 나는 학부학생인 굿펠로 3世와 자주 만나 얘기를 나눈사이라 잘 알고있었다.

나는 그와 조선호텔에서 덕수궁까지 걸어가며 대화를 나눴다.

나는 그와 덕수궁石造殿테이블에서 6시간동안 얘기를 했다. 그는 나에게서 무엇을 탐색하려는 듯 한국의 온갖 사정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나는 굿펠로에게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해주고는『우린 능력을갖춘 자국민으로서 스스로 建國의 길을 닦을것이니 美軍政은 기꺼이 협력을 해야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런지 얼마안된 10월16일, 또 하지의 副官이 집으로 달려와『당신이 제일 반가와할 사람이 왔다』면서『기다리고 있으니 조선호텔로 빨리 가보란』고 독촉했다.

李承晩박사였다. 난 李박사를 보자마자 기쁨이 북받쳐 울음이 터져나왔다. 8년만의 상봉이었다.

李박사는 날 부둥켜안더니『얼마나 고생을 했나. 고문으로 다리가 부러졌다더니 어떤가』라며 날 위로했다. 평소 눈물을 보이지않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李박사는 8·15직후 곧 귀국하려했으나 美국무성이 歐美委員部 대표자격으로는 여권을 내줄수없다고 거절, 결국 우여곡절끝에 OSS의 굿펠로大領과 맥아더 極東軍사령관의 도움을받아 민간인신분으로 美軍用機편으로 16일하오5시쯤 쓸쓸하게 귀국한것이다. 李박사는 美군용기에 민간인은 탈수없어서 군복上衣를 걸친채 33년만에 故國땅을 밟았다. 나는 李박사가 還國첫 밤을 만난 한국인이었다.

나는 李박사의 요청으로 처(孔恩惠), 任永信과함께 그날부터 뒷바라지를 했다.

이날 하오엔 金性洙, 宋鎭禹, 白寬洙, 張德秀, 金度演, 金俊淵등민족진영의 인사들이 찾아와 李박사에게 인사를 했다.

얼마후 呂運亨, 許憲이가 찾아왔다. 來意를 들으니『우리 人民共和國의 主席인 李承晩박사가 귀국하셨서 부주석(呂運亨) 국무총리(許憲)의 이름으로 환영하러 왔다』는 얘기였다. 左翼은 9월14일 李박사 이름으로 朝鮮人民共和國組閣명단을 만든 것이다. 나는『누가 인정한 인민공화국이란 말이냐. 그런 허수아비장난 그만하라』며 그들을 제지했다. 그래도 예의상 만날 수는 있다싶어 李박사와 상의했더니 李박사는 펄쩍 뛰며 면회를 사절했다. 그들은 문전에서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불그락 푸르락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人共派들은 각 신문으로 하여금 李박사가 그들과면담『主席職』을 수락했다고 보도케했다. 기막힌 일이었다. 당시 신문기자들중 절반이 훨씬 넘는 상당수가 좌익계여서 그들의 선전이주효한 셈이었다.

李박사는 어떠한 建國작업도 臨政의 還國後에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나중에는 臨政의 法統을 계승해야한다는 李박사의 강력한주장때문에 그는 하지와『敵對的 관계』에 놓이게 된다.

하지는 당초 李박사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李박사가 귀국했을때 하지는 조선호텔로 그의 고위부하들을 대동하고와 깍듯이 인사했다. 하지는 또 李박사에게 국민을 위한 방송을 요청, 李박사는 그때 對국민방송에서『한민족의 義로운자를 ...』

◇33년만에 美國서 還國한 李承晩박사에 대해 美軍의 당국은 美軍이 타던 승용차와 함께 미군 헌병을 護衛로 붙이기도했다.

世界J남자排球

한국、2勝1敗로 決選 진출

브라질과 풀세트接戰…분패

【스포캔(콜로라도州) 7日=聯合】한국은 7일 새벽6시(한국시간) 이곳 팔머고교체육관에서 속개된 제2회 세계주니어남자배구선수권대회C조예선 마지막경기에서 장신 브라질과 2시간45분간의 풀세트접전끝에 3-2로 역전패, 2승1패로 C조2위로 8강의 결선리그에 올랐다.

한국은 이날 鄭壯鎬 李鍾敬 文潤冠의 선전으로 첫세트를 15-13으로 따냈으나 2, 3세트를 내주고 4세트를 15-9로 이겼다.

한국은 5세트에서 3번의 타이끝에 15-13으로 분패했다.

준결승리그에서 美國 西獨(A조) 쿠바 소련(B조) 中共 아르헨티나(D조)등 8강이 진출, 한국은 예선리그의 1패를 안고 美國 西獨과 싸우게돼 4강진출이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제3차전
브라질(3승) 3 (13-15 15-9 16-10 15-14 15-13) 2 한국(2승1패)
◇제2차전(6일)
한국 3 (15-3 15-4 15-3) 0 칠레
브라질 3-0 인도

페루도 本選진출 월드컵蹴球

【리마6日UPI=聯合】페루는 6일 82년도 월드컵南美예선전에서 우루과이와 0대0 무승부를 기록, 본선진출권을 획득했다.

브니엘女高 準決에 全國테니스 開幕

제7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남녀테니스대회가 7일 장충코트에서 열려 釜山 브니엘女高는 여고부1회전서 吳長蓮, 吳英子등의 활약으로 東一女高를 2-0으로 완파하고 2회전서는 기권승을 거두어 4강의 준결승전에 선착했다. 남대일반부의 嶺南大는 中央大를 3-0으로 누르고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에는 남대일반부 9개팀, 여대일반부8개팀, 남고부 12개팀, 여고부 12개팀이 출전, 남자는 4단1복, 여자는 2단1복식의 단체전을 벌인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88-2361

주간女性

모든 좋이 있는 生 〈195〉 趙善作 禹慶熙畵

灰色노우트 ㉗

그의 고른 호흡 소리가 내 귀가에 전해졌다. 발을 치우는 등, 자발적인 행위로 억눌렀던 충동이 나는 되살아 오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니, 충동이 시작된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는지도 몰랐다. 밤에 들어와서 어지럽혀진 것들을 치울때까지는 그저 막연한 상태에 있었고, 밤이 깨끗해지자 다시 그의 옆에 눕겠다는 생각을 해내게 된 것인지도. 여관은 전체적으로 고요했다. 숙박업소들이란 대개 정오가 지난 얼맛동안이 가장 한요한 시간일는지도몰랐다. 그 쓰레기통과 재떨이 따위를 들고 방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동안도 나는 아무와 만나지 않았으며, 그렇게 적요한 여관의 풍경도 내가 또 한번 그런 충동에 허덕이도록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랬다. 처음 내가 그의 여관을 찾아나섰을때만해도 내게 그런 충동은 없었다. 그가 시라오 때문에 여관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때도 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부터 머리에 떠올린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나는 J씨의 침실에서 빠져 나온지 몇 간 되지도 않은것이다. 나는 다만 J씨가 그의 여관으로 달려와 무슨 허튼말을 할는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왔고, 그런 장면으로 버려둘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다.

나는 가만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와 벽 사이에 내가 충분히 몸을 끼울 수 있을만큼 너비의 공간이 있었다. 나는 간밤에 J씨와의 일을 회전이 빠른 필름의 화면처럼 역순으로 회상하며 멈칫거렸다. J씨와의 일이 어떻게 결말지어질까.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겠지만 그 정도로 J씨를 침묵시킬 수 있을까, 하는 뒤숭숭한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쳤다. 만약 J씨가 달려온다면. 이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가만히 일어났다. 그리고 출입문쪽으로가서 실내등의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나는 곧 부질없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다시 켜놓았다. 만약 이 순간에 J씨가 달려와 어떤 장면을 목격한다면 그것은 그를 참혹시킬뿐 아니라, 그가 보여주었던 엄청한 희망마저 깨끗이 지워 버릴 수 있다는 잠깐스런 생각을 나는 얼핏 했던 것이다.

나는 다시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밤에 들어온 이래 그가 처음으로 뒤척였다. 그는 이불을 끌어 당기면서 벽쪽으로 돌아누웠는데 나는 한 사이 그가 나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가 겨냥했던 그와 벽사이의 공간이 없어져 버렸다. 이 잠결에도 그가 나를 거부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잠시 좀 쓰게 웃었다. 나는 잠시 그의 등 뒤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옷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그가 다시 돌아누웠으며, 천장을향해 똑바로 누운 자세가 되었다. 나는 그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칼으로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이 거친 피부, 꽉 다물지못한 입술 따위가 그의 곤비(困憊)한 나날을 말해주는 듯했다. 피곤한 그에게 내 몸이 어떻게 하는 지나친 학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나는 얼핏 했다. 그러나 그는 학대마저 꼭 필요로 하는, 일테면 누더기를 걸쳐야 글을 쓸수 있다는 누구처럼 학대를 받아야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드리프스의 단추를 풀었다. 그래. 그에게는 잠시의 간격도 주지않고 영원히 그를 따라붙는 잔혹한 추적자가 필요해. 텔리비전 외화(外畵)에 나오는 무고한 도망자. 도망을 계속하지 않고는 드라마가 생겨나지 않는 킴블의 수명처럼 그에게는 내 추적이 필요한 거야.

그때였다. 밖에 누군가 찾아온 것이다.

流星의 賦 〈177〉 李炳注作 李友範畵

山空花自紅 ㉗

이것은 진무제(晉武帝)의 궁관(宮官) 부현(傅玄)이 쓴 시의 일절이다. 홍계남이 그런 연유를 알까닭이 없었지만 그뜻을 알수는 있었다. 하찮은 여자의 몸으로 사랑을 받게되니 비루한 마음 이를데없다로 될 줄은 숙향의 간절한 소원이 계남의 가슴을 찡하게 울렸다.

계남도 붓을 들었다.

「今夜見佳人(금야견가인)
容華如玉器(용화여옥기)
此身泥土相(차신이토상)
與君知我悲(양소지아비)」

「오늘밤 가인을 만났는데 그얼굴 아름다와 옥으로 된 그릇과도 같다. 함께 이몸은 진흙으로 만든 꼴이로다. 좋은 봄 나는 슬픔을 알았다」는 뜻으로 쓴 글귀였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필담(筆談)하길 삼경(三更)에 이르렀다. 숙향의 붓끝으로부터「어찌하여 슬픔을 말하느냐, 난 우리의 만남에 기쁨을 느낄 뿐이다」하는 문자가 나오기도 하고, 견우(牽牛)와 직녀(織女)의 신화를 들어 자기 마음을 가탁(假托)하기도 했다. 말로선 나타내기 어려운 감정을 글로썬 나타낼수 있는 경우란 것이 있다. 아니, 남녀의 정을 피력하는데 있어서 사람은 말로써보다 글로써 보다 대담할 수가 있는것이다.

계남은 숙향의 정염(情炎)을 그 필적에 느끼고 스스로의 몸에 뜨거운 피가 용솟음 치는 것을 보는듯 했다. 그러나 윤(倫)에 벗어난 짓은 할수 없다는 자제(自制)가 강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뜻의 글을 썼다.

「나는 불행한 운명을 지닌 어머니를 모시고 있소. 그런 까닭에 일거수 일투족(一擧手一投足) 어머니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은 삼가하고 싶소. 내 숙향씨(淑娘氏)와 정을 맺은것을 어머니가기뻐하시질 않을까닭이 없지만 사전(事前)에 의논드리는것과 사후(事後)에 알리는 것과는 효(孝)와 불효(不孝)가 다를만큼 다를줄 아오. 내 빠른 시일에 어머니의 승낙을 얻어 숙향씨를 다시 찾을것이니 우리 그날을 기약(期約)함이 어떻겠소이까」

이에대한 숙향의 답은―

「효(孝)를 다하려 해도 효를 다할수 없는 소녀의 처지로선「효」란 말을 하늘의 별처럼 보고 봄철의 동풍(東風)처럼 듣기만 하였는데 이밤 그대에게 효의 화신(化身)을 보듯함에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드는 마음이옵니다. 소녀가 비록 거룩한 당신으로 하여금 효도를 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진 못할망정 어찌 그 효도를 방해할수 있으오리까. 효는 신(信)의 처음이라 하였거늘 소녀는 당신의 말을 믿을것이오며 그날이 오길 기다릴 참이오나 사람으로서 말을 못하는 불구(不具)이고 보니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간절하오이다」

계남이 북받치는 정에 겨워 저도 모르게 한손으로 붓을 들어

「花不須言(화불수언)」花容自言(화용자언)」이라고 했다.

「꽃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꽃의 모습이 스스로 말한다」는 뜻이다.

숙향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에 이슬처럼 구르는 것이 있었다.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534-2003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MEADOWGLEN PLACE
202A, SCARB.
ONT M1G 2V6

☎ : (B)438-6440 (R)439-1335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00PM~2: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742-1618 김 선 남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AUDI
CATCH A RABBIT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엑기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745-2058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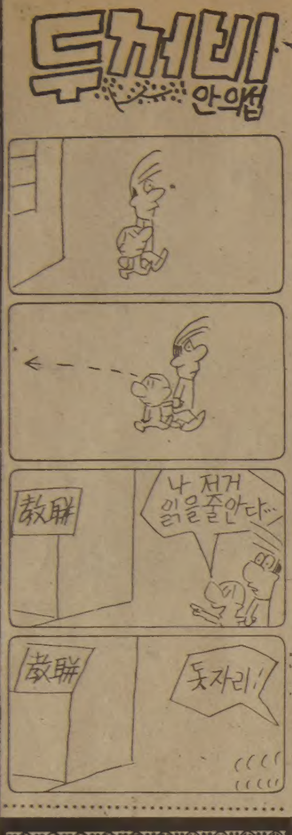
(한국 정통침구의학회 정수인 사람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水災民 지방세 減免

內務部 지시

내무부는 7일 태풍 에그니스로 재산피해를당한 수재민들에게 재산세와 농지세, 주민세등 각종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용자금상환기간을 연장하는등 태풍피해 복구종합지원대책을 마련, 전국시도에 시달했다。

또 이번수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세 농지세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재해민의 재산세, 사업소득세 취득세등도 6개월정도 징수유예토록 했다。

피해종류별 지방세 감면내용은 다음과같다。

◇가옥및 선박이 파괴또는 유실된경우 ▲반파이상=재산세 1년간 전액감면 ▲소파=재산세 1년간 전액또는 일부를감면 ▲피해재산의 복구취득했을땐 취득세·전액면제

◇농경지가 매몰또는 유실된경우 ▲정상 영농시까지 농지세 및 재산세전액면제 (최장기 5년).

칠흑바다서 漁船·貨物船충돌

잠자던漁夫 18명 失踪

어제새벽3시 統營앞바다서、수색계속

표류하던 9명은 救助

두척 모두 레이다·燈끄고 運航

【釜山=聯合】 6일상오3시30분께 경남統營郡欲知面菊島남방 14마일해상 (북위34도12분、동경1백28도25분)에서 오징어잡이어선 제1명신호 (40·38톤)와 화물선 화평진주호 (1천5백95톤)가충돌、제1명신호가 침몰하는바람에 이배에 타고있던 어부27명중 선장 崔상윤씨 (43) 등 9명은 구조되고 기관장 강평부씨 (53) 등 18명이 실종됐다。

이날 사고는 제1명신호가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때 화평진주호가 빠른속도로 달리다 옆을 받아 일어났다。

명신호 어부들은 대부분 조타실밑 침실에서 자고있다가 사고를 당해 18명이 실종됐고 나머지9명은 충돌순간 바다로 뛰어들어 10여분간표류하다 화평진주호에의해 구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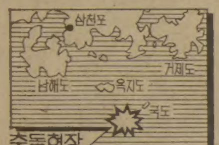
사고해상에선 화평진주호와 해경경비정4척이 실종자 수색을 벌였으나 1명도 찾아내지 못한채 화평진주호는 구조된9명을 태우고 釜山으로 귀항했으며 경비정은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제1명신호 출동사고는 양쪽 선원들의 운항부주의로 일어났음이 밝혀졌다。

해경부산지구대는 7일 이에따라 가해선박인 화평진주호의 당직항해사였던 2항사 박형원 (25) 선장 김철균씨 (43) 피해선박인 제1명신호 선장 최상윤 (43) 조타수 이상태씨 (34)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선박매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화평진주호는 2항사인 박씨가 조타를 잡고 항해를 하면서 레이다를 가동치않고 야간항해를하는 바람에 명신호를 그대로들이받아 침몰시켰으며 명신호의 선장 최씨와 조타수 이씨는 법규를 무시한채 선체의 등을 모조리 끄고 야간에 운항을 하였다는 것이다。

◇화물선과충돌、침몰한 제1명신호의 구조된 선원들。(원내는 화물선선장 金哲均씨) 【釜山=聯合】



◇실종자 명단

▲姜평부 (53·강원도溟州郡注文津邑注文1里) ▲朴일천 (31·경기도富川市範朴洞7통6반) ▲金영규 (54·忠武市鳳坪洞79) ▲徐장모(56·忠武市鳳坪洞603) ▲金명복 (24·忠武市鳳坪洞10통1반) ▲李명원 (40·강원도溟州郡注文津6里) ▲金영주(53·경기도楊州郡隱縣里上牌里) ▲元장길 (32·注文津邑注文里) ▲林길선 (24·注文津邑注文里) ▲盧만천 (60·서울東大門區祭基洞345) ▲姜진혁 (49·注文津邑注文里) ▲都홍권 (69·注文津邑注文里) ▲金도섭 (37·注文津邑注文里) ▲金종복 (37·溟州郡玉溪面金津里) ▲李권만(28·東草市校洞272) ▲朴권식 (27·釜山東區草梁洞3가176) ▲李형천 (45·注文津邑橋項里) ▲金용주 (40·경북永川郡琴湖面鳳亭里)

颱風재산피해 7百52億집계

死亡실종 百26명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태풍 애그니스로 인한 피해는 인명피해가 사망93명 실종33명 부상47명등 1백73명이고 이재민1만3천8백98명이며 재산피해는 7백52억2천4백47만원이었다고 7일 최종집계를 발표했다。

中·高입학등록금 豫置制 없애기로

문교부는 7일 중·고교입학예정자들이 입학1·2개월전에 미리납부하는 등록금예치제도를 82학년도 신입생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82학년도중·고교 진학자들은 등록금을미리 예치하지않고 학교배정이 끝난후 해당학교에 납부하면 된다。

단순變死면 死者도 人權보호

檢察지시 民怨없게 死體 즉각 家族에인도

犯罪관련없으면 醫師檢屍만

범죄와 관련이없는 단순변사사건의 처리 절차가 대폭간소화된다。대검은 7일 지금까지 각종변사사건의 경우 발견—신고—경찰조사—검사지휘등의 처리절차때문에 늑장처리되는수가많아 유족들의 민원을 사왔다고지적, 이를개선하기위해 「변사사건처리지침」을 새로마련, 전국각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검찰의 이같은 개선으로 수재, 낙뢰, 파선등 자연재해로인한 사망, 익사, 자살, 소사, 추락사, 감전사, 교통사고 사망등으로 인한 변사의경우 사체가족잘유족에게 인도되게 됐는데 이는 유족들이 시신도 모시지 못한채 문상객을 영접하거나 출상전날에야 사체를 인도받는등의비인도적인 사례가 없어지고 「사자의 인권보호」도 지켜지게 되는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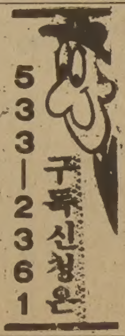
검찰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변사의경우 모두담당검사가 직접검시、지휘서를 발부하던것을 ▲범죄관련성이 전혀없고 ▲단순변사가 틀림없으며 ▲유족들이 사인에대해 의문을 나타내지않을 경우 경찰단독으로 의사의사체검안서만을받고사체를즉시 유족에게인도하도록했다。

또 변사체에대한 의사의소견과 유족, 발견자, 목격자등 관계인의 진술및 경찰의 현장조사결과 범죄관련성이 없는사실이 명백한▲익사(표류익사체제외) ▲소사▲감전사▲추락사▲약물 또는 가스중독사와 범죄사실이 뚜렷하고 가해자가 분명해 사체 부검의 필요가 없고 유족이 사인규명을 요구하지않는 ▲교통사고 사체(뺑소니 사고사 제외) ▲유람선의 전복으로 인한 익사체 ▲방화 또는 실화로 인한 소사체 ▲각종 안전사고로인한 산업재해사 등은 경찰의 발생보고및 지휘품신과 검사의 처리 지휘를 모두 전화로해 최소한 「발생신고접수 12시간내」에 사체가 유족에게 인도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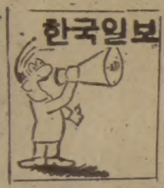
그러나 이 지침은 ▲살인, 강도살인, 강도치사, 상해및 폭행치사, 강간치사및 살인, 방화치사등 주요강력사건에 의한 변사사건 ▲범죄개재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사인불명으로 사체부검이 필요한 변사사건▲유족이 사인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변사사건 ▲사회의 이목을 끌거나 중요인사대한 변사사건등은 경찰이 서면으로 검찰에 보고, 담당검사는 보고접수후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나가 직접 검시를 하고 사체부검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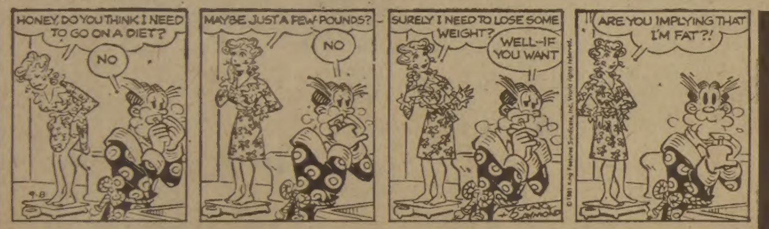
검찰은 이경우에도 발생후 24시간 이내에 유족에게 사체를 돌려주도록 했다。

검찰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연평균 2만여건의 변사사건 대부분이 사건발생후 24시간~2일 후에나 사체가 유족에게 인도되는등 폐단이많았다。 【崔奎植기자】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블론디 딘·영作

"여보,저 다이어트를 해야할것 같아요?"
"아니"

"아마 몇파운드는 줄여야 할까보죠"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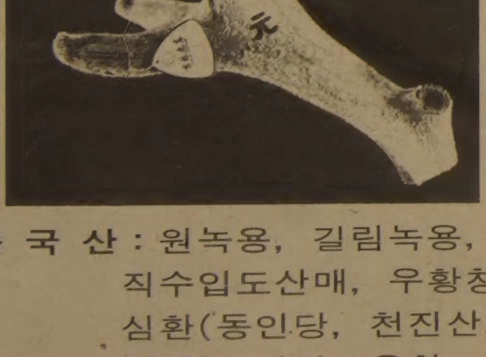
"분명히 체중을 약간 줄여야 하느냐 이말예요?"
"뭐…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제가 뚱뚱하단얘기죠?"

싸다고 소문 난
가 나 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가을맞이대세일

녹용을 잡수실계절이 왔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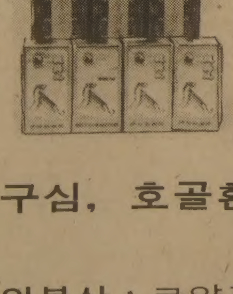
중 국 산 : 원녹용, 길림녹용, 직수입도산매, 우황청심환(동인당, 천진산, 남경), 사향, 우황, 편자광(간장치료), 해구신, 십전대보탕, 경명주사

캐나다산 : 웅담, 산삼(산지에서 직접수집), 해구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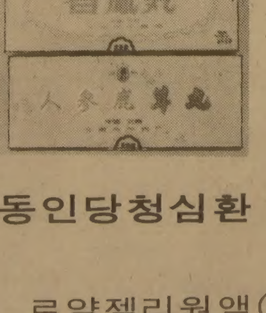
!! 염가 판매 !!

OSTER프라이판
SUPER GRILL
REG. $53.95
SALE. $2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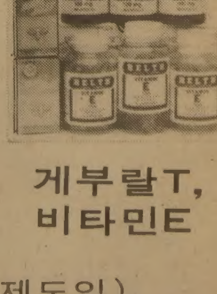
비타민및 로얄젤리!



구심, 호골환



동인당청심환



게부랄T, 비타민E

일본산 : 로얄젤리, 로얄젤리원액(미제도입), 간장보호제, 간장약, 비타민E, B콤푸렉스, 게부랄T, 고단위종합비타민, 어린이비타민

기 타 : 신경통특효약, 당뇨병약, 기응환, 구심, 용각산, 위장약, 간유구, 정력제, 해구환, 소화제, 무좀약, 호랑이기름연고등

★탈모증 특효약 입하

머리가 빠져서 고민하십니까?

뒷편에 무료주차장을 이용하십시요

미도파

MasterCard VISA

454 BLOOR ST. 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서울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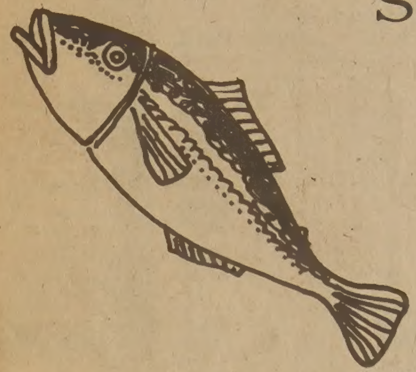
BIG SALE
BIG SALE

생선류

육류

한국. 미국으로부터 대량 직수입

SPECIAL!! 세일기간 9월8일(수)부터



		REG.	SPECIAL
● 불고기등심	Lb.	2.59	2.20(10파운드제한)
● 갈 비	Lb.	1.69	1.29(Box제한없음)
● 소꼬리	Lb.	1.35	1.09
● 참기름깡통(일본제품)		10.90	9.50
● 한국농장용 배 추 / 무 / 풋고추	} 농장가격으로그냥 서비스		
● 명간장	1 gal		6.90
● 양잡피	1 kg	2.25	1.80
● 삼양라면	1 박스(50개)당15봉지 Free		
● 삼양냉면	1 박스 5인용	24.00	19.00(1박스제한)
● 청수냉면	1박스 2인용	24.00	19.00(1박스제한)
● 오징어젓	Lb.		80¢ (특별가격)
● 한국고추가루	Lb.	3.50	2.90
● 어리굴젓	Lb.	4.90	2.90
● 각종선물용상품(gift)	−20% 디스카운트		
● 쌀	미국에서 도착즉시 추가세일할것임		
● 삿보로라면		13.90	11.50
● 산요보온밥통			128.00(특별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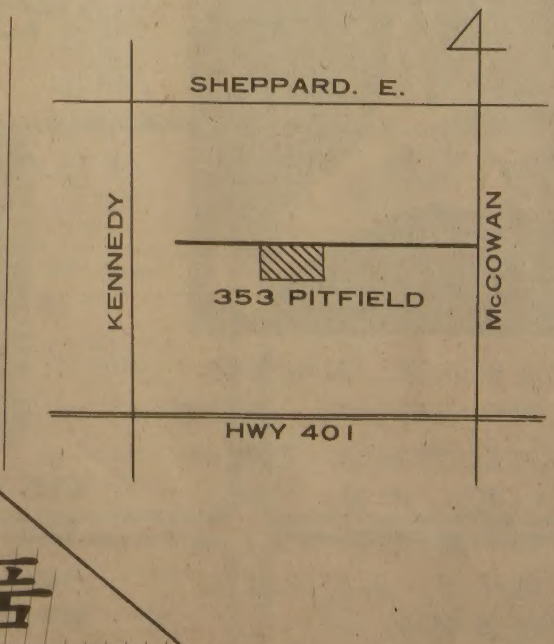
추천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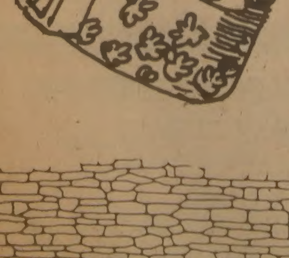
야채류

생활용품

주소 : 353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 울 식 품

서울식품